[UCI]I804:24011-200000239685

2010년 2월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논문

홍타이지의 皇帝權 강화와 大淸帝國 성립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전 승 호

홍타이지의 皇帝權 강화와 大淸帝國 성립

HongTaiji, The Reinforcement of the Emperor Power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tical System to the Great Qing Empire.

2010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전 승 호

홍타이지의 皇帝權 강화와 大淸帝國 성립

지도교수 김 성 한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역사교육전공)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전 승 호

전승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 종 범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성 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경 숙 인

2009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目 次

ABSTRACT i

Ⅰ. 머리말 1

Ⅱ. 홍타이지 즉위와 권력기반 확보 3

1. 17세기 초 後金의 정치상황 3

2. 홍타이지 즉위와 정치적 위상 7

3. 漢人 지식인의 흡수와 만주 신흥 귀족 세력의 등장 10

Ⅲ. 홍타이지의 中國式 皇帝權 강화 16

1. 중국식 관료기구 도입과 한인 지배층의 대두 16

2. 議政王大臣會議와 4버일러 세력 제거 25

3. 몽골 지배와 대청제국 성립 35

Ⅳ. 맺음말 43

참고문헌 46

ABSTRACT

HongTaiji, The Reinforcement of the Emperor Power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tical System to the Great Qing Empire.

Jeon Seung-ho

Advisor : Prof. Sung han Kim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When Hongtaiji became hán(汗) in Mǎnzhōu, replacing Nurhachi, the system of HòuJīn was in crisis. Since Nurhachi' time had the control of Hànrén over Liáodōng already been unstable and the attack against Ming was at a standstill. Rather, it was placed in a situation of worrying about Ming's invasion. Moving its capital to Shěnyáng as a way out, things were not improved and Nurhachi died of injuries sustained in battle with Ming. HòuJīn was eventually brought to an economic crisis and isolation due to the lack of farming and international relations. Besides having the unstabil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t came to a political crisis internally. In the years after Nurhachi's death, Eight banners syetem whose unity was maintained by the patriarchical authority were turned into ' bāqí representative system(八旗合意制)' as the country drifted toward disunion. Hongtaiji had two main concerns; one was the unification of the nation to prevent the collapse of HòuJīn system and the other was the extension of

the foreign trade to hold tight its fort in Liáodōng. In order to overcome these crises, Hongtaiji had to take domestic and international measures. Above all, he massively corrected an oppressive measure against tribe which was taken in his old days and proposed the policy called designed for separate living between Mǎnzhōu tribe and Han tribe. He also opened the offices to the talented Hànrén scholars who barely survived in massacre caused by the oppressive measure against Han tribe in Nurhachi's time. Hongtaiji's appointing Hànrén the government officers led to the reorder of Chinese Administrative System such as Wenguan(文官) and liùfǔ(6部) and the reinforcement of his military force. In addition to it, he gradually deprived three Beiles such as Daesun, Amin and Mangoyitae etc. who were in the same positions of their powers to continue to reinforce his political influence. Moreover, his strategy and attacked the stronghold of Csaharok department in Mongolia, hoping the debouchment into Mogolia. In 1635, the Crown Prince in Csaharok department surrendered, and Hongtaiji enhanced his political prestige to a higher level by gaining Great Yuan's Royal Seal. Hongtaiji established peace in Csaharok department and, at the same time, he occupied Great Yuan's Royal Seal for the whole country. Upon this opportunity, he changed the name of his tribe from Nǚzhēn to Mǎnzhōu and, next year, he ascended the Imperial throne of Great Qing inducted by lords in Mǎnzhōu, several Beiles and Hànrén officers. The Great Qing established like this had the structure of governing Man, Mong and Han. This structure stands for the unity of Man, Mong and Han in the northwest because it put Han's north farming area of chángchéng under its own control while indirectly ruling over Mongolia. It also meant that Qing Dynasty has formed a miniature of a political structure, making the greatest territory of its own since the beginning of its relation. To be sure, the political tendency in the

period was the source of political stream presented in the history of Qing Dynasty from the beginning of its relation until it formed the greatest territory in the years of Qiánlóng 20s. It is recognised that The Great Qing developed its political structure as it extended itself to the size of a huge tribe country.

Ⅰ. 머리말

홍타이지는 천총10년(1636년)에 만주족과 몽골족의 諸王과 한족 문인들에 의해 추대되어 대청의 황제 자리에 올라 연호를 崇德으로 개원하고 대청국을 성립했다.

그 한 해전에는 이전부터 민족명으로 사용하던 여진을 만주로 고쳤고, 황제 즉위를 전후하여 팔기제를 팔기만주 · 팔기몽고 · 팔기한인의 형태로 정비하여 만·몽·한의 세 민족으로 구성되는 체제를 확고히 했다. 이 밖에도 1638년(숭덕3)에는 外蕃으로 삼은 내몽골의 각 부족집단을 다스리던 蒙古衙門을 理藩院으로 개칭하여 개조하기도 했다. 만주족의 역사는 홍타이지로 인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건륭 20년대에 최대 판도를 형성하기까지 청조의 역사에 나타나는 정치적인 흐름의 원천이었다.

북방민족으로부터 발원한 만주족이 入關 後 중국 내지의 농경 지역뿐만 아니라, 현재의 중국 동북부, 대만, 내·외몽골, 신강, 티베트 등의 넓은 지역을 지배함으로써, 중국 역사상 미증유의 국가 영역을 이룩하고 중국 최후의 征服王朝로서 성장하게 된 요인에 대해, 지금까지 만주족의 강력한 전투력과 함께 중국의 한인 사대부층에 대한 적절한 회유와 통제의 양면정책으로써 국가의 지배권을 관철시켰음을 통설로 하고 있다.[1)]

청조의 성립과 발전을 단순한 결과적 측면에서만 고려할 경우 위와 같은 淸代史 전개의 전반적 인식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주족의 중국정복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문화적으로 저급했던 북방민족인 만주족이 문화적으로 우월했던 漢族을 지배하고, 중국 최후의 征服王朝인 동시에 明朝의 뒤를

---

1) 청조의 성립과 발전에 관한 설명은 조너스 D 스펜스,『현대중국을 찾아서 1』,김희교역,이산,1999; 임계순,『청사-만주족이 통치한 중국』,신서원,2007 ; 신채식,『동양사개론』,2008(개정3판) ; 김두현,「淸朝政權의 成立과 發展」,서울大學校東洋史硏究室,『강좌중국사』Ⅳ, 서울:지식산업사,1989 ; 조재덕, 『淸朝 皇帝支配體制 確立에 關한 硏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노기식, 「滿洲의 興起와 東아시아 秩序의 變動」, 『中國史硏究』16, 2001 등 참조.

이은 중국 최후의 專制王朝로 中國史에 위치하기까지에는 그렇게 단순하게만 인식할 수 없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淸朝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明末에 발흥하여 '後金'을 건설하면서 세력을 확장시켜 '大淸'으로 발전하게 되는 이른바 '入關前史'와 명조가 멸망한 이후 북경에 진주하여 중국을 통치한 시기인 입관 후의 청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두 시기는 국가권력의 형태라든가 정치집단의 성격, 사회조직, 경제규모 등 여러 면에서 커다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연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입관 전의 만주사회의 성격, 사회구조 등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주족이 흥기한 이후 세력 확대의 과정에 대한 분석도 수반되어야 한다. 더욱이, 그들의 세력이 후금 그리고 대청으로 나아가게 되는 요인, 그리고 中國征服의 과정과 통치권의 확립과정에서 그 성격이 어떻게 변화되면서 정착되어 갔는가 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명조의 통치구조는 어떤 형태로 청조에 연결되었으며, 그 결과로서 청조의 통치구조는 어떤 성격을 지니게 되는 가 하는 문제도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후금의 건국에서 대청제국을 성립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국식 전제군주체제를 확립하는 홍타이지시기를 중심으로 입관 전 청조가 中國 內地 정복을 위해 요동한인들에 대한 지배권을 어떻게 침투시켜 나가는가 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특히 지배층이나 한인관료들에 대한 대책과 그들이 대청제국 성립 발전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주해 온 만주족에 대한 중국 내지에서의 정착, 중국지배에 대한 대책과 그에 따른 통치기구의 편성, 만주 汗에서 만·몽·한의 지배구조를 형성되는 과정을 정리함으로써 홍타이지 시기 중국식 황제권력 확립과정과 대청제국의 성립이 주는 의미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Ⅱ. 홍타이지 즉위와 권력기반 확보

1. 17세기 초 後金의 정치상황

17세기 초 아이신지로 누르하치(Aisingoro Nurhcahi : 愛新覺羅[2] 努爾哈赤)는 後金의 강화된 군사력을 이용해서 明朝의 군사적 압박을 견제하여 女眞의 정치적 통일을 완수함으로써 200여 년 동안 지속되었던 명조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이탈하였다.

누르하치가 起兵한 처음부터 遼東으로 진출하거나 入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을 리는 만무하다. 누르하치의 초기 목표는 자신의 대외경제권 확대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통합에 있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대외경제권 확보와 정치적 통합을 이룬 다음에는 이를 확대 유지하기 위해 명조의 지지를 획득하려고 하였다.[3] 그러기 위해서 누르하치는 명조에는 친히 여러 차례 조공을 바치는 등[4]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명 조정이 그의 세력 확장을 경계하지 않도록 하였다.

1588년에는 佟佳江 방면의 東建州部가 복속해 오자 그 세력이 압록강 방면까지 미쳤으며, 1592년에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명 조정의 간섭이 소홀해지는 틈을 타서

---

2) 愛新은 만주어로 '金'이라는 의미이며 覺羅는 '族'이라는 의미이다. 즉 愛新覺羅는 '金朝의 귀족'이라는 뜻이다. 李洵 · 薛虹 主編, 『淸代全史』 第1卷(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91), p.57

3) 누르하치의 明朝에 대한 初期의 태도는 孟森의 『淸太祖告天七大恨之眞本硏究』에서 轉載하고 있는 天聰年問본 「七大恨文」에서 「명조에 대한 누르하치의 마음은 金石과 같다.」라 표현될 만큼 明朝에 충직을 표시하였다. 孟森,『明淸史論著集問』,臺北,南天書局, 1987, p.210 이후, 점차적으로 누르하치가 대내적으로 국가체제를 완성해가면서는 明朝에게는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충성을 표현하며 明의 관직을 수여받거나 요구하기도 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누르하치는 조공을 통해 명조에 끊임없는 충성을 표시하여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소멸시킴과 동시에 明朝로부터 하사받고 조공무역을 획득한 물품으로 여진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해 나갔으며, 이와 더불어 明朝의 내부 사정도 염탐해 볼 수 있는 一石三鳥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던 것이다. 閻崇年,『努爾哈赤傳』(北京, 北京出版社, 1983年), pp.149-152 참조.

4) 누르하치의 明朝에 대한 朝貢에 대하여 閻崇年의 『努爾哈赤傳』(北京, 北京出版社, 1983年), pp.149-152에서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그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복전쟁을 감행하여 海西女眞의 忽剌溫部와 조선의 六鎭에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한편으로는 명 조정에 朝貢使를 파견하여 공물을 바쳤다. 이에 1595년에는 명 조정으로부터 여진수령에게 주는 최고 영예인 龍虎將軍의 직함을 받았다.[5)]

이렇게 세력을 확장한 누르하치는 1599년 몽고문자를 차용한 만주문자[6)]를 제정함으로써 만주고유의 문화를 유지하고 민족의식을 함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진사회를 部落단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國家體制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1616년에 이르면 누르하치의 세력은 북으로 흑룡강 중하류와 우수리강 유역까지, 동으로는 조선의 六鎭, 남으로는 寬甸, 서쪽으로는 遼東邊牆에 이를 정도로 여진 거주 지역 대부분을 그 세력 하에 두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국가를 수립할 준비를 갖추었다.[7)]

누루하치는 1616년 정월 초하루(양2월 17일)에 汗(Han)位에 올라 국호를 '金', 연호를 '天命'이라 하였다.[8)] 국호를 '金'으로 정한 것은 이전에 여진족이 건립하였던 金왕조를 계승한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건국 이후 누르하치는 지금까지의 명에 대한 태도와는 달리 명을 선제공격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는 명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七大恨[9)]'이라는 명조

---

5) Frederic Wakeman, Jr., *The Great Enterprise : The Manchu Reconstruction of Imperial Order in Seventeenth Century China*(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85),p.51 : 李洵 · 薛虹, pp.64-66. 용호장군 직함에 대해서는 苕上愚公, 「東夷考略」潘喆 · 孫方明 · 李鴻彬 等編, 『淸入關前史料選輯』第1輯(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4), p.65 참조.

6) 이 시기에 창제된 滿文은 無圈點滿文(혹은 舊滿文이라고도 칭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지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어 1632년(天聰6年)에 達海에 의하여 新滿文으로 개조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그러므로 구만문이 여진사회에서 사용된 기간은 1599년에서 1632년까지 약 33년이라고 할 수 있다.

7) 房守志, 「試論努爾哈赤的歷史功績」, 傳波 主編, 『淸前史論叢』(藩陽:遼寧人民出版社,1994), pp. 11-12

8)『淸史稿』 卷1, 「太祖本紀」, p. 9.

9) 七大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明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明朝가 그들을 죽였다. ② 누르하치가 여진부족들을 통일하는 과정에 明이 예허(Yehe : 葉赫)部族의 편을 들었다. ③ 후금은 명의 변방 장군과의 약

가 범한 7가지 죄상을 열거하고 撫順城을 선제공격하여 약탈하였다.

생각하지도 못한 공격과 패배에 놀란 명 조정은 다음해 3월 조선의 원군까지 포함한 십 수만[10]의 대군을 파병했으나 무순 부근의 사르후(Sarhu: 薩爾滸)전투에서 섬멸되고 말았다.[11] 이 결전에서 압승함으로써 요동통치권은 누르하치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12]

北方民族 사회에서 정치적 통일은 대외경제의 기반 없이는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 누르하치는 결국 여진 통일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복이라는 대외 경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누르하치는 遼東에 들어가자마자 '計丁授田' 제도를 시행하여 요동의 토지를 분배하였다.[13] 이는 단기적으로는 약탈경제와 농경, 遼東漢人 지배 경제에 의존하면서 장기적으로는 明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對明 관계를 수립하려고 하였던 시도였으며, 여진사회 통합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속에 의하여 국경을 넘어온 사람을 죽였는데 오히려 명 조정이 이에 대하여 後金에게 책임을 묻고 후금의 사절을 죽였다. ④ 예허부족이 공주를 누르하치에게 보내기로 했는데 명의 관리가 공주를 납치하여 명과 우호관계에 있는 몽고에게 주었다. ⑤ 後金이 紫河 · 三岔兒 · 撫安 등지를 개간하려 하자 명이 여진족을 몰아냈다. ⑥ 명의 예허와 후금의 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예허에게 후금을 중상 모략했다. ⑦ 명은 후금과 여러 여진 부족들과 동명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특히 예허에게 의심과 증오감을 갖도록 조장하고 명과 예허부족이 함께 後金을 압박했다.〔淸史稿』 卷1, 「太祖本紀」, p. 9.: 中國第一歷史檔案館 · 中國社會科學院歷史硏究所 譯註, 『滿文老檔』 上(北京: 中華書局, 1990), pp.55-56 : Pamela Kyle Crossley, "Manzhou Yuaanliu Kao and the Formalization of the Manchu Heritab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46~4(Nov. 1987), p. 771: 今西春秋, 「ヌルハチ七大恨」, 『東洋史硏究』1~4(1936), pp.8-12〕

10) 『淸史稿』 卷1, 「太祖本紀」, p. 10에는 20만이라고 되어 있다. 조선군대 포수 3천 5백 명과 사수 6천 5백 명을 조선 都元帥 姜弘立이 지휘하였는데, 이들 중 5천여 명이 누르하치에게 항복하였다고 한다.〔『淸史稿』 卷526 列傳 313 屬國, 朝鮮琉球, p.14567; 李肯翊, 『燃藜室記術』(民族文化文庫刊行會, 1986), p.275; 李成茂, 『朝鮮王朝史』(동방미디어, 1998), p.531〕

11) 유지원, 「사르후(薩爾滸, Sarhu)戰鬪와 누르하치」, 『明淸史硏究』 13, 2000. pp.149-165에서 사르후 전투의 전후 상황과 의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2) 愛宕宋男 · 寺田隆信, p.428 : 孫文郎 等, 『明淸戰爭史略』(瀋陽: 遼寧人文出版社, 1986), pp.26-125.

13) 計丁授田의 분배 대상 등에 대한 논의는 김두현, 「遼東支配期 누르하치의 對漢人政策」, 『동양사학연구』 25. 1987.참고

대외경제의 확대 시도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요동 진출이 후금에게 대폭적으로 안정적인 대외경제 상의 확대를 보장해주지는 않았다. 요동진출을 통해 漢人에게 노동력 · 곡물 · 병력 등을 부담시킴으로써 경제적 기반을 확보[14]하고자 하였던 누르하치의 생각과 달리. 안으로는 요동 한인들의 반항과 도망이 계속 이어졌고, 밖으로는 명과 대치 상황에서 明軍의 반격 위협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해상에서는 毛文龍의 게릴라 활동이 후방을 교란시키고 있었다. 또한 明朝를 지원하는 몽골과 朝鮮에 둘러 싸여 요동은 국제 관계에서 고립되어 있었다. 여기에 가뭄이 겹치자 요동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15]

요동 支配의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 누르하치는 결국 漢人과 공존하려고 했던 遼東 支配政策을 포기하였다. 1625년 누르하치는 한인의 저항을 주도하는 退職官吏와 秀才, 농경에 종사하지 않는 漢人을 조사하여 대량으로 도살하고, 남은 한인은 톡소(tokso:莊)로 편성하여 노예화하였다. 그리고 明과의 대치 상황과 주변의 몽골 · 朝鮮에 대한 전략적 고려를 하여 수도를 遼陽에서 瀋陽으로 후퇴시켰다. 이제 명과의 전쟁을 통해 고립을 탈피하는 것만이 요동의 안정적인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누르하치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寧遠城 공격에서 중상을 입고 사망하였다.[16]

후금은 또한 정치체제 상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누르하치가 건립한 후금은 국가체제의 초기 단계였다. 互市경제 체제에서 형성된 八旗制를 요동한인 지배에 그대로 적용하였고, 요동 진출 전후 암반(Amban:大臣)[17]에 대한 등급체계로서 武官制를 시행하여 대외경제 이익의 분배와 늘어난 관원의 수요에 대비하였던 것[18] 이외

---

14) 金斗鉉, 1987, 앞의 논문, p107

15) 『大淸太宗文皇帝實錄』卷3, p.26

16) 누르하치의 요동진출과 한인지배에 대한 내용은 閻崇年, 『努爾哈赤傳』北京, 北京出版社, 1983. : 滕紹箴, 『奴爾哈赤評傳』, 遼寧出版社, 1985. 金斗鉉「遼東支配期 누루하치의 對漢人政策」, 『東洋史學硏究』25, 1987 참조.

17) 노기식, 「누르하치의 암반(amban)에 대한 組織化와 統制」, 『明淸史硏究』16輯, pp.63-86. 참조

18) 노기식, 「누르하치 시기의 武官制와 재물분재」, 『송갑호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1993, pp.249-264.

에는 정치제도 면에서 그다지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특히 官制의 측면에서 매우 조악하여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계통적인 행정기구가 형성되지 않아 그저 八旗制度와 議政 5大臣, 理事 10大臣정도가 국가의 행정을 처리할 뿐이었다. 팔기제도는 기본적으로 군사제도이고, 팔기관은 거의 만주족이었기 때문에 한인이 우세한 요동에서 이를 통해 통치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했다. 그리고 八旗制는 버일러(Beile:貝勒)[19]가 국정을 공동으로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군사 사안을 모두 집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원시성을 띠고 있었으며 권력 분열을 초래할 위험도 안고 있었다. 지역은 넓고 인구는 많으며 경제 문화가 발달한 요동지역 통치를 누르하치가 설치한 국가체제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요동 진출 직후인 17세기 초 후금 체제는 붕괴의 위기에 빠져 있었다.[20]

2. 홍타이지 즉위와 정치적 위상

누르하치는 1626년 초 明의 용장 袁崇煥이 지키고 있던 寧遠城 공격에 실패한 후, 중상을 입고 건강이 나빠져 7월에 淸河에 가서 치료하고자 하였으나 병세('등창')가 점점 심해져 심양으로 돌아가려고 8월에 배를 타고 太子河를 내려오다가 6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누르하치는 임종시 국가 정사나 자손에 대한 遺訓을 남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21] 후에 홍타이지(Hongtaiji, 皇太極)[22]의 즉위와

---

19) 버일러은 만주족과 몽골족의 수령에 대한 존칭으로 사용되다가 누르하치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여러 아들들과 조카들에게 팔기의 사무와 총관(總管)의 일을 맡기면서 그들을 버일러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버일러는 화석친왕(和碩親王), 다라군왕(多羅郡王) 다음의 작위 명칭이기도 하였다.

20) 노기식,「滿洲의 興起와 東아시아 秩序의 變動」,『中國史硏究』16, 2001, pp.16-17.

21) 누르하치 역시 처음에는 漢族의 종법제도를 받아들여 長子 추엔(Cuyen: 褚英)을 후계자로 삼았었다. 그러나 추엔은 도량이 편협하여 형제들이나 대신들과 화목하지 못했고, 심지어 수차에 걸쳐 누르하치가 전쟁에서 패배하도록 저주까지 했다. 결국 누르하치는 그를 사형에 처하고 후계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李鴻彬, 『淸代開國史略』, 濟南:濟魯書社, 1997, pp.

관련해서 많은 억측과 논쟁, 이로 인한 내분까지 일어나기도 하였다.[23]

그러나, 이미 누르하치는 천명 7년 3월 嗣君에 대해

> 나를 이어 군주에 될 자는 强勢之人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한번 國君이 되면 强勢를 倚恃하여 하늘에 罪를 짓게 된다. 또 한 사람의 識見이 衆人의 智慮에 미칠 수 있겠는가? 너희 八人은 八旗旗主이니 同心幹國하여 失政이 없게 하라. 팔기기주, 너희들 가운데 才德이 있고 諫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나를 이어 卽位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諫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道에 따르지 않거든 다시 有德한 자를 뽑아서 즉위케 함이 옳다.[24]

118-119

22) 皇太極이란 이름에 대해 『대청제국』의 저자 이시바시 다카오는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였다. 皇太極은 본명이 아닌 통칭이었으며 본명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어 확실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皇太極는 몽골족 세습귀족 관리의 명칭으로 자주 보이는데 여기에서 차용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단어는 중국에서 제위 후계자를 가리키는 皇太子의 한자음을 연상시키는데, 이 점도 가미되었다고 본다. 어째든 皇太極은 황태극이라는 통칭을 누르하치 생전부터 이미 누르하치의 후계자로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도록 사서의 기록을 粉飾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시 다카오,『대청제국 1616~1799』,홍성구역, 휴머니스트 2009. pp.118-119

23) 홍타이지의 汗位繼承에 관하여 李肯翊의 『燃藜室記述』과 『東華錄』을 근거로 소위 '奪位'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팔기기주 가운데 당시 汗位를 계승할 수 있는 가장 적임의 大버일러는 실질적으로 다이산과 홍타이지뿐이었다. 제 2 大버일러인 阿敏은 비록 白戰의 전력과 중병인 양람기를 거느렸다고 하더라도 누루하치의 조카로서 누루하치의 親子들과 汗位를 論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제 3 大버일러인 망굴타이는 繼妃 富察氏의 소생으로 다이산과는 嫡庶의 關係가 있었으며, 더구나 정백기의 기주였던 홍타이지와 제 1의 大버일러이자 양홍기의 기주 다이산을 상대로 汗位를 놓고 대항할 만한 勢力은 아니었다. 또한 나머지 4小버일러는 어려 汗位繼承을 論할 자격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大位에 뜻이 없는 다이산의 홍타이지에 대한 적극적인 추대는 양황기를 장악하여 군사력에서 기타 旗主의 2배가 되고, 才能 · 武功 · 智略에 있어서 諸兄弟보다 출중했던 홍타이지가 大位를 계승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종원, 「정묘호란시의 후금의 출병동기」, 『동양사학연구』12·13, 서울대동양사학회, 1978.; 盧基植,「滿洲의 興起와 東아시아 秩序의 變動」, 『中國史硏究』16, 2001.; 최소자, 「청조의 왕위계승과 다이곤(多爾袞)」『이화사학연구』9, 1970.참조

24)『大淸太祖武皇帝實錄』,卷4, 天命 7年 3月 3日條

고 하면서 자신이 죽고 난 뒤 팔기기주들의 합의에 의해 유덕한 사람을 뽑아 자신의 후사를 잇도록 하였고, 합의에 의해 汗의 자리에 오른 이가 道를 따르지 않으면 다시 덕이 있는 자를 즉위하게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보아 도르곤이 사실상의 후계자였는데 홍타이지가 탈위했다는 설은 억측이었을 가능성이 높다.[25]

주지한 바와 같이 누르하치는 따로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는데, 홍타이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 한이 되었는지 살펴보자. 우선 요토(Yoto, 岳託; 大善의 長子) 와 사할리얀(Sahaliyan, 薩哈廉; 大善의 三子) 형제가 논의하여 부친인 다이산(Daisan, 大善)에게 "국가에 하루라도 군주가 없어서는 안 되니(國不可一日無君)" 마땅히 하루 속히 大計를 정하여야 한다고 하며 4번째 貝勒(홍타이지)을 추천하였고, 다이산 역시 이것이 자기의 夙心이라고 하여 자신이 주도하는 회의에서 홍타이지를 汗으로 추대하는 일을 거론하였다. 이 회의에서 아민(Amin, 阿敏), 망굴타이(Manggultal, 莽古爾泰)등의 4大버일러을 비롯해 아바타이(Abatai, 阿巴泰; 누르하치의 7子), 더거러이(Degelei, 德格類; 누르하치의 10子), 지르갈랑(Jirgalang, 濟爾哈郎), 아지거(Ajige, 阿濟格; 누르하치의 12子), 도르곤(Dorgon, 多爾袞; 누르하치의 14子), 도도(Dodo, 多鐸; 누르하치의 15子), 두두(Dudu, 杜度; 褚英의 장자), 호거(Hooge, 豪格) 등이 동의하여 홍타이지에게 즉위를 청하였고, 홍타이지는 사양하다가 결국 汗位의 자리에 올랐다.[26]

天命 11년(1626) 9월 1일 심양에서 홍타이지는 卽位典禮를 擧行하였다. 홍타이지는 天地를 향해 "버일러들이 함께 예의를 따라야(諸貝勒共循禮義)" 하며 "올바른 도리를 실천하되, 경건히 따를 것을(行正道, 君臣交儆)" 맹세하였고, 3名의 大버일러을 비롯한 諸버일러들이 忠誠의 盟誓를 한 後, 太宗 홍타이지는 諸버일러들을 거느리고 다이산, 아민, 망굴타이를 향해 三拜禮을 하였다.[27]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홍타이지는 비록 汗位繼承은 하였지만, 누루하치가 天命 7年에 정한 후금정권의 통치방침에 따라 홍타이지는 3大버일러들과 나머지 八旗를

---

25) 도르곤의 왕위계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최소자, 「청조의 왕위계승과 다이곤(多爾袞)」 『이화사학연구』9, 1970. 참조

26) 『大淸太宗文皇帝實錄』卷1, 天命 11年 8月

27) 『大淸太宗文皇帝實錄』卷1, 天命 11年 9月 初 1日條

통솔하는 諸버일러들의 대표자일 뿐이며, 특히 3名의 大버일러들과는 主從의 臣下關係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例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년에 堂子[28]에 제사를 지낼 때에도 汗은 먼저 당자를 향해서, 그 다음 神祇에 절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숙부들과 형제들에게 머리를 숙인 후 자리에 앉았다.[29] 그리고 매년 새해 초가 되면 모든 형의 거처로 가서 신년을 축하하였다. 그의 누이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30] 이를 통해 당시 후금 정권 내 汗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면은 홍타이지가 비록 대위를 계승하였지만 형식뿐이었고, 실제로는 홍타이지와 3명의 大버일러가 '나란히 황제의 자리에 앉아(南面竝坐)' 공동으로 정치를 집해하고 있었던 局面을 이야기 한다.

3. 漢人 지식인의 흡수와 만주 신흥 귀족 세력의 등장

홍타이지가 표면적으로는 누루하치의 뒤를 이어 汗位를 계승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正·鑲黃旗를 소유한 한 명의 大버일러에 지나지 않았다.[31] 이에 汗位에 오른 황태극는 후금의 정치 · 경제 · 군사적 안정과 후금사회의 효과적으로 통치를 위해 자신의 지배권을 공고히 해야만 했다.

주지한 바와 같이 누르하치는 天命 4年(萬曆 47年 ; 1619) 4月 薩爾滸(shrhu)戰鬪에서 明과 朝鮮의 연합군에 대승을 거둠으로써 遼西進出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누루하치는 요동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저항하는 漢人들에 대해 무자비한 학살과

---

28) 만주족이 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일컫는 용어이다. 만주족은 하늘, 신, 조상에게 고유의 제사를 지냈는데, 처음에는 제사를 지내는 일정한 장소가 없었다가 점차 그 장소를 마련하였는데, 그것을 당자라 불렀다.

29)「八皇子進問嗣位」,『滿文秘檔』(『近代中國史料叢刊101,文海出版社,1967,天命 7年3月),pp. 69-72;「太祖泣諭四貝勒」,p.87;『大淸太宗文皇帝實錄』卷4, 天命 7年 3月 初3日(『淸入關前史料選輯』1,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4)

30)『大淸太宗文皇帝實錄』卷 十一, 天聰六年 正月 己亥.

31) 胡貢明, 『天聰朝臣工奏議』, p30. ;"有人八家分養之, 土地必八家分据之, 卽一人尺土, 貝勒不容于皇上. 皇上不容于貝勒, 事事掣肘. 雖有一汗之名, 實無異于黃旗一貝勒也."

억압정책을 취하였다. 만주족의 침입으로 노예가 된 한인들은 '늘 침략을 받아 소요가 일어나면, 대부분 도망치는 (每被侵擾, 多致逃亡)'[32] 국면을 이루어 요동사회는 매우 불안정하였다. 또한 滿洲族의 압박이 가중될수록 토착한인들의 저항도 점차 첨예화되어 滿洲族에 대한 投毒, 암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일부는 도적이 되어 '말을 타고 위협하거나 사람들을 죽이는 일(乘馬劫殺)'[33]이 심각하게 발생되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 있어 누루하치는 對漢人徙民策과, 만주의 東北地域에서 이동해 온 滿洲族과 遼東의 漢人을 일부지역에 合住시키는 滿漢合住策을 시행하여 漢人에게 노동력 · 곡물 · 병력 등을 부담시킴으로써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였다.[34] 그러나 滿漢合住策에 의한 滿洲族의 착취[35], 明과 朝鮮의 對後金 鎖禁政策에 따른 경제사정의 악화[36] 등으로 인하여 누루하치에 의한 요동지배는 일단 실패하였다.

이에 1629年 9月 1日(天命 11年) 瀋陽에서 즉위한 홍타이지가 앞서 언급한 후금정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일 먼저 취한 개혁조치들 중 하나가 요동지역 토착한인에 대한 同化政策이었다.

天命 11년 9월 5일 汗位로 추대된 直後 홍타이지는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는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을 앞서지 못 한다(治國之要, 莫先安民)"[37]을 강조하여 요동의 한인들이 후금 지배의 이탈을 방지하는 일련의 措置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살펴보면, 우선 漢官이나 漢民을 막론하고 이전에 탈출을 도모했던 자들이나 또는 明과 자주 내통했던 자에 대해서는 死刑에 처하도록 하였다.[38]

그리고 다음날인 6일에는 홍타이지는 또 다시 諭를 내려 농사에 방해가 되는 域

---

32)『大淸太宗文皇帝實錄』卷1, p.11
33)『淸太祖武皇帝實錄』天命 6年 6月
34) 金斗鉉, 1987, 위의 논문, p107
35) Gertraude Roth, "The Manchu-Chinese Relationship, 1618-1636", Johnathan D. Spence ed., *From Ming to Ching*, Yale Univ. Press, 1978. PP. 14-15
36)『大淸太宗文皇帝實錄』卷3, p.26; "時國中大饑, 斗米直銀八兩, 人有相食者."
37)『大淸太宗文皇帝實錄』卷1, p.9
38)『淸史稿』卷2, 本紀2, 太宗本紀1 ; "甲戌, 諭漢官民有私計遁逃及令奸細往來者, 雖首告勿論, 後惟己逃被獲論死."

廓邊墻의 건축을 금지시킴으로써 民力의 소모를 막고 백성들이 농사에 전념토록 하였다. 또한 訟事나 差謠에 대해서도 滿 · 漢人에 차이를 없앴으며, 滿洲貴族과 官員 및 그 屬下의 滿洲旗人들이 漢官의 재물이나 漢人들의 牛羊鴨豚을 임의로 강탈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漢人들이 도적화 하는 근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생각된다.[39]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한 근본적인 요인은 홍타이지 자신도 명백히 인지하고 있듯이, 編丁立莊策에 의한 滿漢合住가 만주족의 한인에 대한 착취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한인들이 莊屯(tokso)에서 이탈하는 근원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상과 같은 홍타이지의 정책적 조치들은 明과 朝鮮의 塞禁政策과 滿洲族의 한인착취 및 토착한인들의 저항 등의 요인으로 악화된 요동지역의 통치적 ·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된 것으로 보여진다.[40]

한편 지배층 출신의 투항 한인관료에 대한 우대도 홍타이지 시기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누르하치도 起兵 초기에는 한인관원을 중용하였으나 요동진출 이후에는 이를 포기하였고 요동한인의 반항이 계속되자 한인관료들에 대해 더욱 의심을 품고 신임하지 않았다. 그러나 홍타이지는 이러한 편견을 버리고 한인관료를 중용하고 우대하여 이들이 후금정권을 지지하고 후금을 위해 종사하게 하였다.[41] 한인관료에 대한 그의 우대는 만주귀족들의 불만을 일으키기도 하였다.[42]

한인의 투항에 대한 홍타이지의 구체적 방침은, 첫째 현직의 明朝官員이 투항하는 경우 그 관직을 그대로 세습시키며, 둘째 일반민이 관리를 사살하고 투항해 오는 경우 그 공과에 따라서 관직을 수여하며, 셋째 단신으로 투항해 오면 생활의 방편을 제공하며, 넷째 무리를 이끌고 투항하는 경우 그 인원에 따라서 관직을 수여하는 것이었다.[43]

---

39) 王思治 主編, 『淸代人物傳稿』上編, 第1卷, 中華書局, 1984, p.14.
40) 조재덕 『淸朝 皇帝支配體制 確立에 關한 硏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p.81.
41) 노기식, 2001, 위의 논문, pp.23-24.
42) 홍타이지의 한인관료 우대와 만주족의 불평에 고나해 홍승주 투항시 일화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미야지마 히로시, 『조선과 중국 근세 오백년을 가다-일국사를 넘어선 동아시아 읽기』, 김현영 역, 역사비평사, 2003,pp.204-205를 참조
43) 孫文良, 『淸太宗全傳』, 吉林人民出版社, 1983. pp.107-148.

그리하여 이미 范文程 · 李永芳 · 洪承疇[44] 등의 무장의 투항으로 인해 강력한 무력을 소유하게 되었고 大陵河戰 이후 일련의 한인무장이 대거 투항하였다. 이들은 대개 요동출신의 무장집단들로서 여러 전투에서 뛰어난 공을 세웠으니 祖澤潤 · 祖可法 · 祖澤溥 · 祖澤法 · 劉良臣 · 劉武 · 孫定遼 · 張在仁 등이 그들이다. 이들이 투항해 온 이후, 즉 대릉하전 이후의 전투에서부터 이들 투항 한인무장들이 전면에서 전쟁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이후의 명조와의 전쟁도 엄밀한 의미에서 滿漢전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45]

이들의 투항 이후에 또 다른 일련의 한인무장집단이 투항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전의 무장집단과는 여러 면에서 성격이 달랐다. 이들은 孔有德, 耿仲明, 尙可喜 등으로 이른바 山東三所徒이다. 먼저 1633년 明將 모문룡의 부장인 공유덕과 경중명이 홍의포 30여 문을 가지고 투항하였다. 홍타이지는 공유덕에게는 都元師로, 경중명에는 總兵官으로 각각 임명했고, 그들이 인솔한 약 1만 4천 명의 한인군사는 만주팔기에 예속시키지 않고 天佑兵이라고 불리는 특별군으로 만들었다.[46] 뒤이어 1634년에는 明將 상가희가 2천 명의 병사와 함께 투항하여 총병관에 임명되었고, 그의 수하군사는 天佑兵과 같은 성격의 부대인 天助兵이 되어 큰 공 전공을 세웠다.[47]

이들 세 명의 장수들은 모문룡 휘하의 출신으로 해전의 경험이 있으며, 상호간 깊은 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이후 삼번의 난에 참가한 공통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들이 모문룡 휘하의 무장 출신이라는 점은 명조에 대한 태도를 짐작

---

44) 명의 대신이었던 홍승주는 1642년(숭덕 7) 松山에서 포로가 되었는데, 홍타이지의 후한 대접을 받고 투항하였다. 蕭一山,『淸代通史』,pp.206-211.

45) Wakeman, Frederic, Jr., T*he Great Enterprise; The Manchu Reconstruction of Imperial Order in Seventeenth-Century China, Univ of California Press, 1985*.pp.157-224.; 김두현,「淸朝政權의 成立과 發展」, 서울大學校東洋史硏究室編, 『講座中國史』Ⅳ, 서울:지식산업사, 1989.pp. 156.

46) 공유덕 · 경중명 · 상가희의 군대를 八旗와 구별하기 위하여 白鑲皀旗를 쓸 수 있도록 홍타이지가 허락하였다.『淸史稿』卷2,本紀 2,「太宗本紀」1, pp42-45;Wakeman, Frederic, Jr.,pp.199-200에 공유덕은 8,014명, 경중명은 5,866명의 부하와 함께 투항했다고 되어 있다.

47) 淸史稿』卷2,本紀 2,「太宗本紀」1, pp44.

할 수 있으며, 이들의 투항으로 인하여 북방의 해안은 이미 명조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48]

또한, 홍타이지는 무장들의 흡수뿐만 아니라 명조의 유능한 문인 관료들의 흡수하여 자신이 추진하는 건국사업에 협조하게 함으로써 중국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그의 웅지를 펴는 발판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明制를 답습하여 각종 행정기구를 순차적으로 설립하고 투항한 항인에게는 관직을 하사하여 세습토록 하였다.

더욱이 그는 1629년 버일러府와 滿族 · 蒙族 · 漢族의 모든 生員들에게 考試를 보도록 하여 200여명을 선발했고, 노복들 가운데서도 자격이 있는 자를 관원으로 선발함으로써 점차 한인관원의 수를 증가시켜 나갔다. 그는 중국식 행정기구를 통하여 만인관리들을 교육시켜 중국정복 이후 황권을 보좌하도록 할 생각이었다.[49]

이와 함께 홍타이지는 정치, 군사적 상황을 타파하고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우선 자신이 관할하고 있던 정황 · 양황의 2기의 무력을 증강시켜 나갔다.

즉 양구리(Yangguri;揚古利) 등의 開國元勛으로 하여금 자신의 2기를 이끌도록 함으로써 전투력을 상승시켰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위에 오르는데 적극적인 인물이었던 요토와 지르갈랑[50], 도르곤, 도도 등을 중용하여 자신의 세력을 확고히 하였다. 또한 아지거의 실책을 빌미로 도르곤으로 하여금 양백기를 장악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황 · 양황 2기뿐만 아니라 정백 · 양백의 2기까지도 실질적으로 장악하여[51] 자기의 세력을 증강시켜 나갔다.

天聰 3年(1629) 正月에 이르러 皇太極은

---

48) Wakeman, Frederic, Jr., T*he Great Enterprise; The Manchu Reconstruction of Imperial Order in Seventeenth-Century China, Univ of California Press, 1985*.pp.228-310.; 김두현, 1989, 위의 논문, pp. 156.

49) 임계순, 『청사-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신서원, 2007.

50) 아민이 누르하치 사망 후 홍타이지에게 독립가능성을 타진하였을 때, 홍타이지는 지르갈랑(아민의 弟)을 통해 아민의 진의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아민을 축출한 홍 그가 관리하던 양람기를 지르갈랑에게 넘겼다. 아민이 계속해서 조선의 도성으로 진격하겠다고 완강하게 버틸 때 요토는 다른 기들은 아민의 제안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호언하면서 지르갈랑을 통해서 '아민을 설득하게 하였다'(『滿文老檔』, 天聰 4年 6月 7日,pp.401-405).

51) 蕭一山, 『淸代通史』1, 臺北,商務印書館, 1963.

이전, 天命 6년 2월에 태조는 4대버일러에 명하여, 月에 따라 (富直을) 서도록 하여 國中의 모든 機務를 그 달에 (富直을) 맡은 버일러들이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上(홍타이지)이 즉위한 (후에도) 3버일러들에게 월에 따라 (國務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지금에 이르러, 上이 諸貝勒과 8大臣을 모아 놓고 공동으로 상의하기를, (어떤 國事를) 8대신에게 命하여 3大貝勒에게 諭를 전달하고자 하면, 월에 따라 3大貝勒이 國家機務의 (당직을) 맡고 있는 까닭으로 一切의 機務가 번번히 번거롭게 여러 兄(3大貝勒)을 거쳐야 하는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52]

라는 것을 이유로 三大버일러 以下의 諸버일러들이 "번갈아 가면서 직월의 일을 맡도록(代理直月之事)" 改定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명목상으로는 자신과 동등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3버일러 들이 「直月」(每月 번드는 것)하여 일절의 機務를 처리함이 크게 未便하다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이들을 國政에서 소외시키고[53] 자신에게 충성하는 기주들을 국정에 참여시키게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권력기반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52)『大淸太宗文皇帝實錄』卷5, 天聰 3年 正月 丁丑條 ; "先是, 天命六年二月, 太祖命四大貝勒, 按月分直, 國中一切機務, 俱令直月貝勒掌理, 及上卽位, 仍令三大貝勒分月掌理. 至是, 上集諸貝勒八大臣共議, 因令八大臣, 傳諭三大貝, 向因直月之故, 一切機務, 輒煩諸兄弟經理, 多有未便"

53) 김종원, 「정묘호란시의 후금의 출병동기」, 『동양사학연구』12·13, 1978. pp.68-69

Ⅲ. 홍타이지의 中國式 皇帝權 강화

1. 중국식 관료기구 도입과 한인 지배층의 대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홍타이지는 즉위와 함께 漢人 무장세력과 신흥 滿洲貴族 세력들을 지배계층을 흡수시킴으로써 정권의 기초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더욱이 홍타이지는 명조의 유능한 文人 官僚들을 흡수하여 자신이 추진하는 건국사업에 협조하게 함으로써, 요동지역에 대한 지배체제를 확고히 하는 발판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는 雄志와 智謀 그리고 百戰의 전투 경험을 갖춘 인물로서 대위에 오른 후, 투항한 한인관료들을 기용하여 軍政과 民政이 合一된 형태의 후금정권에 대해 一大 개혁을 추진하였다. 홍타이지는 한관들로부터 立國要諦를 듣고 배움으로서 국가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각급의 관제를 설치하게 되었다. 『天聰朝臣工奏議』가운데 「高鴻中陳刑部事宜奏」에 의하면 홍타이지는 제버일러들에게 "모든 일마다 대명회전에 준해서 힘을 다해 계책을 얻어야 할 것(凡事都照大明會典行, 極力得策)"을 강요하며 明의 제도를 모방한 정부체제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천총시기 中國式 官制가 출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홍타이지는 천총 3년(1629) 4월 '文館'을 설치하여 초보적 漢化의 통치형태를 취하였다.『東華錄』천총 3年 4月 초1일조에 따르면 홍타이지는

> 巴克什 達海, 筆貼式 剛林·蘇開·顧爾馬渾·託布戚 等의 4人에게는 한자서적을 번역하도록 하였고, 巴克什 庫爾纏, 筆貼式 吳巴什·查昭喀·胡球·詹覇 등의 4人에게는 本朝의 정사를 기록하여 역사를 믿을 수 있게 명백히 밝히도록 ····54)

54) 蔣良騏, 『東華錄』, 天聰 3年 4月 ; "命巴克什達海, 同筆帖式剛林·蘇開·顧爾馬渾·託布戚等, 四人繙繹漢字書籍, 巴克什 庫爾纏, 同筆貼式吳巴什·查昭喀·胡球·詹覇等, 四人記注本朝政事, 以昭信史"

命하였다. 위의 인용된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홍타이지가 문관을 설치하여 漢文書籍을 번역토록 한 것은 中國의 정치 · 문화적 경험을 만주족사회에 이식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後金의 정사득실을 記注하고자 함은 홍타이지 자신의 집권을 합리화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언급되기도 한다.[55]

또한, 문관의 설치는 한인관료들의 정치세력으로 등장하는데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문관은 한자 서적을 번역하고, 政事를 기록하여 사서 편찬을 위한 기본 자료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 문관에서 일하는 이들은 만주어로 문서 해독 능력을 갖춰 '文儒' 라는 의미인 巴克什이 중심이었다. 이 문관에서는 한자 서적을 번역하고 국가의 대소사를 기록하는 것 외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천총 6년(1632) 9월 올린 왕문규의 상소를 보면

> 지금의 書房(문관)은 비록 명목상의 업무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章奏의 출납을 담당하는데 이는 남조의 통정사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56]

라고 하여 문관이 명의 통정사와 같이 문서출납을 전담하는 기구로 설립된 것은 아니었지만, 문서의 출납을 담당하게 하여 새로운 기구와 문서체계와의 연결을 시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홍타이지는 문관의 관리들에게 도원수 공유덕과 경중명에 대한 포상 문제를 논의하게 하였고, 군주의 지시 사항을 적은 내용을 들고 직접 戰線의 장군에게 보내 주둔지 변경을 지시하기도 하였다.[57] 이는 문서를 전달하는 체계가 완성되지 않아서 중대한 사안을 전달할 때는 이들을 직접 파견한 것이었다.

그리고 홍타이지는 문관의 관리들을 버일러에게 보내

> 괴이필 大妃의 딸과 버일러 다탁의 혼인 문제에 대해서 朕은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으나, 다탁이 강력하게 혼인의 뜻을 밝혔다. 그러난 짐이 듣기에 그녀는 출중한

55) 孫文良, 李治亭, 『崇德帝 』,(長春, 吉林文史出版社),1993, p.173.
56) 王文奎,「條陳時宜奏」, 『天聰朝臣工奏議』,天聰 6年 9月
57)『大淸太宗文皇帝實錄』, 卷 14. 天聰 7年 5月

용모와 재능의 소유자는 아니라고 한다. 만일 다탁이 계속해서 혼인을 주장면서 당사자들을 불러서 어떠한가?[58]

라고 하였다. 보기에는 단순한 황실의 혼인 문제로 문관이 황실의 일까지 처리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만주와 몽골의 연맹을 추진하는 방침에 따라서 혼인을 도모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황족의 혼인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황족의 결혼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정치세력의 판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홍타이지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다.

이처럼 문관 관리들이 황제의 권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항에 대해서도 황제를 대신하여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황제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59] 또한 군주가 직접 문관에 행차하여 여러 버일러들을 모아서 회의를 주재하기도 하였다.[60]

이처럼 문관은 자문기관으로서 홍타이지의 옆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希福· 寧完我· 范文程 등의 한인관료들은 이러한 문관을 통해 등장하여 천총년간 동안 홍타이지의 최측근으로서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하였다.

文館의 설립이후 천총 5년(1631) 7월 홍타이지는 명조의 행정조직을 模倣하여 6部를 설립하면서 국가적인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61] 吏 · 戶 ·禮 · 兵 · 刑 · 工의 各部에는 1名의 버일러들로 하여금 부의 서무를 總理하도록 하였다.

또한 各部는 滿洲 · 蒙古 · 漢 承政尙書府 1員을 두었으며, 承政 아래에는 參政(持郞) 8員이 있었다. 단지 工部만 參政 定額에 예외를 두어 滿人 8員, 蒙古 · 漢各 2員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일종의 通譯官으로서 啓心郞의 설치는 당시 만주지배계층을 漢化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천총 7년 10월의 上諭에는

58)『大淸太宗文皇帝實錄』, 卷 14. 天聰 7年 5月
59) 송미령,『청대정책결정기구와 정치세력』혜안, 2005.pp.37-42
60)『大淸太宗文皇帝實錄』, 卷 8. 天聰 5年 正月
61)『天聰朝臣工奏議』, 卷中, 寧完我, 「請變通大明會典設六部通事奏」; “我國六部之名, 原是照蠻子家(明朝)立的 ····”

너희 계심랑은 부사에 관여하지 말고, 오로지 각 버일러의 뒤에 앉아 있다가 만일 (버일러이) 잘못됨이 있으면 즉시 그 마음을 계몽하도록 하여라.[62]

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는데, 이 上諭에 의해 啓心郎의 職務은 各버일러을 啓導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육부의 승정이나 참정과 달리 계심랑은 소속기 출신이 아닌 타 旗의 인물들에서 선발되었다.[63] 이러한 조치는 지위가 낮은 계심랑이 제대로 일처리를 하도록 한 것으로 버일러들에게 예속되지 않도록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계심랑 같은 職官이 설치된 것을 미루어 보아 대부분의 버일러들은 滿洲語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중국식의 定制에 익숙하지 못했음에 알 수 있다. 나아가 통치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고, 滿洲 諸貝勒의 자유분방하고 야만적인 행위를 啓導하기 위한 홍타이지의 의도도 엿 볼 수 있다.

部別 / 職別	吏部	戶部	禮部	兵部	形部	工部
貝 勒	多爾袞(奴兒哈赤의14子)	德格類(奴兒哈赤의10子)	薩哈廉(代善의 3子)	岳托(代善의 長子)	濟爾哈朗(阿敏의 弟)	阿巴泰(奴兒哈赤의 7子)
	所屬旗:滿洲 正白旗	滿洲 正藍旗	滿洲 正紅旗	滿洲 鑲紅旗	滿洲 鑲藍旗	滿洲 鑲黃旗
滿 承 政	圖爾格(鑲白旗調遣大臣)	英俄爾岱, 覺羅薩壁翰	巴都禮, 吉孫	納穆泰(正黃旗8大臣),	車爾格(鑲白旗8大臣),索	孟阿圖(正白旗佐官大臣),

62)『大淸太宗文皇帝實錄』, 卷 16, 天聰 7年 10月 己巳日條 ; "爾等啓心郎不得干預部事, 但坐于各貝勒之后. 倘有差謬, 則啓其心"
63) 張普藩,『淸朝法制史』, 法律出版社,1994, pp.24-25.

		(正藍旗佐官大臣)		葉克書(正紅旗佐官大臣)	海(正藍佐官大臣)	康喀賴(正白調遣大臣)
蒙古承政	滿珠習禮	巴思翰	布顏代	蘇納	多爾濟	蘘努克
漢 承 政	李延庚	吳守進	金玉和	金礪	高鴻中, 孟喬芳	祝世蔭
參 政	8員	8員	8員	8員	8員	滿洲參政: 8員, 蒙古參政: 2員, 漢參政: 2員
啓 心 郎	索尼	布丹	祁充格	穆成格	額爾格圖	滿洲:苗碩渾, 漢:羅綉錦, 馬鳴
	滿洲 正黃旗	滿洲 正紅旗	滿洲 鑲白旗	滿洲 鑲藍旗	소속기 불분명	소속기 불분명

<표 1> 『大淸太宗文皇帝實錄』, 卷 9을 참고하여 6部의 人物들을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위와 같다.

또한 <표1>의 도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各部는 실질적으로 部務를 담당하는 無定額의 筆貼式을 두었는데, 各部事務의 繁重과 簡易를 고려하여 보충되기도 하였다.

<표1>의 표를 살펴보면 6部에는 尙書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尙書大臣에 八旗의 중요한 諸貝勒이 부를 관장하고 있다. 이는 天命 11年 9月에 신설한 總管旗務 8大臣이나 佐管旗務 16대신, 調遣旗務 16大臣으로 이루어진 旗務管理組織과는 또 다른 성격의 국무기관이라 할 수 있다.

承政은 滿 · 蒙 · 漢族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후금정권의 종족 연합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滿族의 承政은 대부분이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6大臣에 속

해 있다. 기무와는 또 다른 성격의 六部의 承政에 滿族大臣이 겸임토록 한 것은 아직도 정권의 職能과 체제가 완비되지 못했음을 나타내며, 旗制와 政制가 병입된 독특한 전환시기 체제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6부의 官員 가운데 啓心郎의 설치는 태종시기 만주지배계층의 '漢化' 정도를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6部가 등장한 후에도, 다수의 漢官들은 "관제가 갖추지지 못하고 법도가 도루 행해지지 못하는 것(官制未備, 法度不周)"이 곧 폐국이 되는 근원이며, 혼란해지는 단서가 된다는 이유로 中國式 官僚制로의 계속적인 개혁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홍타이지는 자신을 제외한 3명의 大貝勒과 권력쟁투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누루하치가 정한 '共議國政制'를 종식하고 중국식의 전제군주제로 지배체제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천총 6년(1632) 말과 7년 초에 正藍旗總兵官臣 漢官 馬光遠이 「敬獻愚忠奏」[64]와 「請設六科奏」[65]를 그리고 書房秀才 馬國柱가 「請更養人舊例及設言官奏」[66]를 계속해서 上奏하여 內閣 · 六科 및 言官設置의 당위성을 諫하였지만 천총년간에는 시종 설립되지 않았다. 이는 천총년간 후금정권이 입법수준이나 행정의 규모면에서 아직도 전통적 봉건국가로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더욱이 당시에는 아직도 旗制와 政制가 명확히 분리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旗主를 대신하는 八旗大臣會議, 離主條例[67] 및 貝勒에 의한 部務의 관장 등은 內閣制나 御史言官制 및 六科給事中 등의 새로운 관제의 출현을 저지시키는 요인으로서 충분한 것이었다.[68]

---

64) 『大淸太宗文皇帝實錄』 천총 6년 11월 28일.
65) 『大淸太宗文皇帝實錄』 천총 6년 11월 29일.
66) 『大淸太宗文皇帝實錄』 천총 7월 정월 19일.
67) 천총 5년(1631) 홍타이지는 旗主의 세력을 削滅하는 일종의 법률적 조치로서 『離主條例』를 頒布하였다. 이른바 '離主'란 奴隷 또는 奴僕이 주인의 犯法行爲에 관해 告發하면 자유의 신분이 되거나 다른 主人에게로 轉屬되는 것을 말한다. 『離主條例』는 노예주가 私行采獵, 擅殺人命, 隱匿戰利品, 奸汚屬下婦女, 冒功濫薦, 壓制申訴 등의 죄를 범하면 奴僕이 주인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만주귀족의 특권을 제한하고 노복화된 한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大淸太宗文皇帝實錄』 卷 9 ; 卷 11

천총 10년(1636) 3월 홍타이지는 문관을 다시 內三院으로 개편하여 內國史院, 內秘書院, 內弘文院을 설립하고 各 院에 1名의 院員을 두었다. 內國史院은 詔令撰擬, 史書編纂 등은 관장하였고, 內秘書院은 對外文書와 勅諭를 담당하였으며, 또한 內弘文院은 제도의 반포나 講經注史 등을 관장하였다.[69]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내삼원의 관제를 개정하여 內國史院에는 大學士 1人과 學士 2人, 內秘書院에는 大學士 2人과 學士 1人 그리고 內弘文院은 大學士 1人과 學士 2人을 설치하였다. 이는 淸代에 大學士가 처음으로 설치된 것이다. 당시 내삼원은 대학사와 학사로 임명된 사람은 다음의 表와 같다.

	大學士	學士
內國史院	剛林	羅碩, 羅繡錦
內秘書院	范文程,鮑承先	詹覇
內弘文院	希福	胡球, 王文奎

내삼원은 명조의 내각 翰林院 六科中書, 通政司 等의 직무를 모방하였다. 청조 내삼원의 직무을 명조의 유관기구와 비교할 때, 內國史院의 직무 가운데 起居記注와 詔令撰擬의 경우, 명대 초기에는 起居注官이 담당하였었고, 후에는 翰林院 소속의 文官이 담당하였다. 그리고 詔令과 郊祭 등의 "表文撰擬를 짓는 것, 實錄修撰하는것, 機密文書, 誥命冊文쓰는 것" 등은 내각과 中書의 '制勅房'과 '誥勅房'에서, 6部의 행사를 사서로 編纂하는 일은 六科給事中과 翰林院 學士가, 각국을 왕래하던 문건은 내각에서 관장하던 것이었다. 各衙門奏疏의 기록은 六科給事中이, 辯寃詞狀은 通政司와 大理寺에서 담당하였다. 또한 內弘文院의 직무에서 進講御前은 明代에 있어서 한림원 학사와 侍讀이, 侍講皇子, 諸王 詹事部의 春坊學士가, 頒行制度는 內閣에서 주관하였다. 淸代에는 宰相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대학사로 하여금 재상의

68) 李询, 薛虹, 主編, 『淸代全史』, 第一卷,(遼寧人民出版社, 1991), pp. 260-261.
69)『大淸太宗文皇帝實錄』, 卷 28. 天聰 10年 3月辛亥.

職을 대행하도록 하였다. 대학사는 議政國家軍政大計에 직접 참가하고 국가기밀을 장악하여 권한이 매우 중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삼원의 설치는 사실상 八和碩貝勒에 의한 '共議國政' 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운 정치체제의 출범을 의미하는 것이었다.[70]

'後金'이 '大淸'으로의 변신을 이룬 이후에도, 홍타이지는 입국의 기틀을 확립하는 집권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먼저 홍타이지는 중국의 전통적 봉건왕조국가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宗室의 세작과 功臣勳戚의 封爵에 관한 제도를 정하였다.[71] 그리고 같은 해 5월에는 6部와 내삼원을 대상으로 하는 都察院을 설립하였다. 이는 천총년간까지 팔기기주에 의해 분산되었던 후금의 권력양상이 완전히 황위에 오른 홍타이지 1인에게 집중되었음을 의미하며, 또한 황제 1인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인 수단이었다.

홍타이지는 숭덕 원년에 도찰원을 설립하면서 諭[72]를 내려 도찰원관원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도찰원의 설립은 八旗버일러들의 동정을 감시하고 대청정권의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찰원의 설립 초기에는 承政과 左右參政만이 설치되었고, 정해진 인원이 없었다.[73]

또한 홍타이지는 천총 10년 4월(숭덕 원년 ; 1636) 外蒙古의 16部 46버일러들이 外藩의 신분으로 '勤進'(제위에 오르도록 요청하는 것)하고, 이밖에 영성의 확대에 따라 중국의 동북지구를 비롯한 邊界의 소수민족과 관계가 증대하자 소수민족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기구로서 '蒙古衙門'을 설치하였다.

後金에서 大淸으로 변신한 후 崇德 3년 6월 홍타이지는 중앙집권을 더욱 강화하고 소수민족 특히 몽고족에 대하여 안정된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몽고아문을 확대 개편시켜 理藩院이 설립하게 되었다. 理藩院은 명의 政制에는 없었던 기구로 만주족이 주변의 민족을 정복하고 이들과의 빈번해진 외교업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70) 조재덕, 1996, 위의 논문, p102.
71) 『淸史稿』, 卷 3, 太宗 本紀 2. 崇德 元年 夏 四月 丁酉條.
72) 『淸史稿』, 卷 3, 太宗 本紀 2. 崇德 元年 五月 丁巳條.
73) 『淸史稿』에 등장하는 最初의 都察院 承政은 張存仁이다.

위해 설립한 독특한 기구였다.

몽고아문에는 승정과 참정 등의 職官을 두었고, 理藩院으로 개편된 후에는 승정 1인, 좌우참정 각1인을 두었고, 참정 이하 理事, 副理事, 啓心郎, 額者庫(額哲庫 : 主事) 은 정해진 인원이 없었다.

나아가 같은 해 7월 홍타이지는 대학사 范文程의 건의에 따라 부원의 관제를 睿親王 多爾袞에게 명하여 고치토록 하였다. 즉, 이전에 各衙門의 관등이 滿 · 蒙 · 漢 구분없이 승정과 참정 2等級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더욱 세분화하여 每衙門은 滿洲 承政 1人만을 두어 1等級으로 하고 그 이하는 職務의 酌量에 따라 左右參政, 理事, 副理事, 啓心郎, 額者庫 등 5등급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하여 숭덕 3년에 이르러 內三院, 理藩院, 都察院, 6部 등이 제도로 정해졌다. 이른바 이러한 '三院八衙門'의 설립은 명실공히 "制令統于所尊"의 체제를 확고히 하는 것이었다. 비록 이러한 제도의 확립과 운영이 실질적으로 滿洲의 支配階層內部에서는 제대로 준행되지는 않았지만,[74] 황태극의 漢族 우대정책에 따라 明의 典章制度에 익숙한 한인관리들이 신속히 흡수되어 재능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청의 황제지배체제 기틀이 확립될 수 있었다. 그러나 태종시기에 이룩된 淸朝의 관료체제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명의 관제를 모방한 것이었다. 팔기제에서 중국식 관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관료의 명칭이나 기구의 職能은 분명 명조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후금시기 분권적이고 독립적인 '八旗共治'의 통치체제와 이 체제에서 나타난 부족적 · 배타적 · 국수적인 특성은 홍타이지의 집요한 권력의 집중과 개혁, 그리고 중국식 관료제도의 전환을 토하여 변모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숭덕년간 청조는 군주전제체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몽고족, 한족을 포괄하여 통치하는 새로운 정복왕조로서의 기틀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75]

---

74) 『大淸太宗文皇帝實錄』, 崇德 3年 7月條에 의하면 홍타이지는 제정된 名戶等級이 만주지배층 사이에서 제대로 遵行되고 있지 않음을 꾸짖고 있다.
75) 조재덕 , 1996, 위의 논문 .p105.

2. 議政王大臣會議와 4버일러 세력 제거

의정왕대신회의의 기원은 누르하치 때에서 찾을 수 있다. 후금의 최고 정책 결정은 “여러 왕들이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방식”인 합의제를 취하였다. 이러한 체제는 天命 6年(1621)에 누르하치가 자신이 사망한 뒤에 국정의 기본 체제에 대해서 ‘八王合議制[76]’로 할 것을 공표하면서 공식화되었다. 그리고 권력을 공유한 4대 버일러 외에 議政十貝勒을 두었다. 이때 의정왕대신회의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들이 논의하여 처리하는 조직의 기본 성격은 그 이후와 비슷하므로 초기 형태로 규정할 수 있다.[77]

홍타이지가 후금의 통치자로 즉위하였지만, 누르하치의 뜻에 따라서 정책결정 등에서 지위를 확보한 의정왕대신회의는 군주가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道를 따르지 않으면 다른 군주를 세울 수도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에 홍타이지는 즉위한 후에도 ‘共議國政’은 형식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팔기합의제의 기본구조는 팔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팔기제도[78]는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합하고 요동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해 여진족 내부의 모든 부락의 성원들을 조직화하고 그의 권력을 공고히 할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졌다.

니루(Niru:牛彔)는 여진사회에서 전통적인 전투나 수렵을 할 때 조직되는 기본단위였는데, 1601년 누르하치는 여진사회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면서 통일된 군사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해 자기 휘하의 부족을 4개의 니루(Niru:牛彔)로 재편되었다.

4개의 조직은 陰陽五行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 4가지 색 즉 黃 · 白 · 紅 · 藍의 깃발로 이 4개의 니루를 구분하여 칭하였다. 그리하여 니루는 만주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군사 단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는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부역을

---

76) 누르하치가 공동합의제를 통한 통치를 주장한 이유로 나이어린 도르곤, 아지거, 도도 등 세력이 약한 버일러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白新良, 『淸代中樞決策硏究』,遼寧人民出版社, 2002.; 楊珍,「後金八王共治國政制硏究」,『中國史硏究』,2001.

77) 송미령, 2005, 위의 책, pp.34-35

78) 팔기제 성립 과정과 편제 등에 대해서는 서정흠. 「명말의 건주여진과 팔기제의 기원」, 『역사교육논집』2,1981.; 김종원,「팔기제도의 성립과정에 관한 일 고찰」,『서강대 동아연구』6,1985.; 임계순,『청사-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신서원, 2007. pp.28-37. 참조

담당하는 경제 · 사회 단위의 역할까지 수행하였다.[79]

누르하치는 이와 같은 새로운 군사조직으로 잇달아 승리를 거두었고, 그 결과 많은 투항자와 전쟁포로들을 얻어 군대를 증원했다. 처음에는 이들 투항자들과 전쟁포로들을 노복으로 삼아 각 수령과 그 부하에게 분배하여 주었으나, 점차 그들도 니루에 편입시킴으로써 니루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1615년 누르하치는 휘하의 부족을 대규모 군사조직인 八旗로 편성하여 지휘체계를 확립했다.[80]

그 가운데 4기는 종전 4개 니루의 4색을 그대로 채택하여 正紅旗 · 正黃旗 · 正白旗 · 正藍旗라 이름 하였고, 나머지 4기는 黃色旗 · 白色旗 · 藍色旗에 홍색의 테를 둘러 鑲黃旗 · 鑲白旗 · 鑲藍旗로, 홍기에 백색의 테를 둘러 鑲紅旗로 불렀다.[81]

누르하치는 1615년에 아들과 조카들 가운데 네 명을 호소이 버일러(Hosoi Belie:和碩貝勒)로 삼아 팔기 가운데 1기씩을 소유하게 한 뒤 각기 휘하 旗의 軍事와 民事를 처리토록 했다. 얼마 뒤에 네 명의 버일러를 추가[82]로 지명하여 軍政事

79) 咢爾泰 等編, 『八旗通志初集』卷30(1739), p10.
80) 『淸太祖武皇帝實錄』卷 4, 萬曆 41年 11月條
81) 『淸太祖武皇帝實錄』卷 4, p.20a: 『八旗通志集』卷1, 「旗分志」, 1, p.2.
82) 1607,1616,1626년 과 즉위 직후의 八旗 旗主은 다음과 같다. 李洵 · 薛虹 主編, 『淸代全史』, p.91. 김종원, 「정묘호란시의 후금의 출병동기」, 『동양사학연구』12·13, , 1978.참고.

<table>
<tr><th>八旗</th><th>1607年</th><th>1616年</th><th>1626年</th><th>홍타이지
卽位直後</th></tr>
<tr><td>正　黃</td><td rowspan="2">努爾哈赤</td><td rowspan="2">努爾哈赤</td><td rowspan="2">努爾哈赤</td><td rowspan="2">皇太極</td></tr>
<tr><td>鑲　黃</td></tr>
<tr><td>正　紅</td><td rowspan="2">代　　善</td><td rowspan="2">代　　善</td><td>代善</td><td>代善</td></tr>
<tr><td>鑲　紅</td><td>岳託</td><td>阿濟格</td></tr>
<tr><td>正　白</td><td rowspan="2">褚　　英</td><td>皇 太 極</td><td>皇太極</td><td>多爾袞</td></tr>
<tr><td>鑲　白</td><td>杜　　度</td><td>杜度</td><td>多鐸</td></tr>
<tr><td>正　藍</td><td rowspan="2">舒爾哈齊
(努爾哈赤의
弟)</td><td>莽古爾泰</td><td>莽古爾泰</td><td>莽古爾泰</td></tr>
<tr><td>鑲　藍</td><td>阿　　敏</td><td>阿敏</td><td>阿敏</td></tr>
</table>

務를 논의하는 議政회의에 참석토록 했다. 한편 누르하치는 이들 八王 이외에도 정무처리를 보좌하는 5명의 大臣, 즉 순자 암반(Sunja Amban:孫紫按班)과 10명의 司法大臣인 자르구치(Jarguci:扎爾固齊)를 임명했다. 이들은 8명의 버일러와 함께 매일 아침에 중요한 정책과 군무를 상의했기 때문에 議定王大臣이라 불렀다.[83]

이 시기에는 아직 민사와 군사가 분리되지 않았고, 따라서 버일러 및 기타 고위 관원들은 민사와 군사를 동시에 관리하는 君民兼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밖에도 창고를 관리하는 보쇼쿠와 문서를 관리하는 박시(Baksi:巴克什, 筆帖式) 등의 관원을 두었다. [84]

처음에는 여진사회를 이루는 기본조직에서 출발하였던 팔기제는 이제는 만 · 몽 · 한을 아우르는 후금사회의 군사 · 행정 · 경제 · 사회제도를 이루는 기본 밑바탕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누르하치가 제시한 팔왕합의제는 문화적으로 앞서 있는 한인이 우세한 요동을 통치하는 데는 불합리하였다. 더욱이 버일러들이 각각의 소유하고 있는 旗를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 군사 사안을 모두 집단적으로 결정[85] 해야 하는 원시성을 띠고 있었으며 권력 분열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었다.

이에 홍타이지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집중을 꾀하였다. 이미 홍타이지는 처음부터 강력한 군사력으로 성장한 여진족의 체계로는 문화수준이 높고 자존심이 강한 漢人을 통치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明代의 부패하고 무능력한 군주들의 실정이 명의 쇠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현실을 직

---

83) 孫紫按班은 諳班 혹은 理政聽訟大臣이라 칭했고, 司法大臣은 扎爾固齊(Jarguci)은 혹은 都堂이라 칭하며 몽고어의 達魯花赤에서 발생된 말이다. 〔梁希哲, 『明淸政治制度述論』(長春:吉林大學出版社.1991), p.331: Gertraude Roth Li, p.20: 三田村泰助, pp.195-206:張晋蕃 · 郭成康, 『淸入關前國家法律制度』(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88, p.9〕

84) Robert B. Oxnam, *Ruling from Horseback : Manchu Politics in the Oboi Regency 1661-1669* (chicago : Univ. of Chicago Press, 1975), p.21:Gertraude Roth Li, p.20.

85) 그 주된 내용은 汗의 즉위와 폐위, 군정(軍政), 재판권, 관리의 임용과 상벌, 팔기 사이의 분쟁, 권력과 권위의 균분 등이 그것이다. 周遠廉, 「後金八旗和碩貝勒'共治國政'論」, 『淸史論叢』北京2, 1980. 참조.

접 목격하고 있었을 것이며 이민족 왕조인 元의 중국통치의 비능률성을 감안[86]하여 이러한 체제를 개혁하여 君主 중심의 專制體制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이에 홍타이지는 점차 만주사회의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 자신을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 개편을 시작하였다. 天命 11년 9월 홍타이지는 8大臣과 佐管16大臣, 調遣16大臣을 설치하여 팔기제도를 확대 개편하였다. 누르하치가 乙卯年(萬曆43년; 1615) 팔기제을 성립할 때, 각기에는 固山額眞(總管大臣)1人, 梅勒額眞(佐管大臣) 각 2人, 그리고 理政大臣 5인과 扎爾固齊 10인을 설치하여 機務를 관장하도록 했다. 그러난 종종 총관대신이 좌관대신을 겸임하여 職制가 분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홍타이지는 버일러들의 건의에 따라 팔기의 지배체제를 확대하였다.

홍타이지에 의해 새롭게 편제된 八大臣의 직무는 諸버일러들과 더불어 國事에 관한 議政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出獵行事'時 각각 本旗의 旗兵統率 및 일체의 國中大小事를 관장하는 것이었다. 또한 각기에 각각 2인씩 증설된 佐管大臣과 調遣大臣의 직무를 살펴보면, 佐管大臣의 경우는 국정을 보좌하여 처리하고 '獄訟'에 관한 審議을 관할하였으나, '出兵駐防'에 관한 일에는 관여할 수 없었다. 그리고 調遣大臣의 직무는 '調遣' 즉 파견이라는 의미대로 주로 출병과 駐防時 현장에 파견되어 형세를 살피는 일이나 '詞訟'에 대한 審理를 관장하는 것이었다.[87]

이와 같은 팔기제에 관한 새로운 定制는 홍타이지가 누르하치를 계승한 후, 자신의 취약한 汗位을 공고히 하고, 요동진출로 확대된 만주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팔기제도의 확대로 보여진다. 즉 자신의 계승에 불만을 품은 滿族重臣들에게 設官分職을 통해 충성을 유도하고, 요동진출로 만주족 사회가 확대됨에 따라 증대된 통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팔기의 기본적 구조를 개편한 것으로 판단된다.[88]

홍타이지는 팔기제에 대한 확대개편과 함께 자신과 동일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4버일러들에 대한 권력을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

86) 申採採, 「宋 이후의 皇帝權」, 『東亞史上의 王權』, 한울아카데미, 1993.
87) 黃鴻壽, 『淸史紀事本末』, 권 11
88) 조재덕, 1996,위의 논문, pp. 81-83 .참조.

天聰년간 漢族降臣인 胡貢明이 태종에게 올린 奏疏에서

> 게다가 오로지 옛 풍습에만 젖어 있어 賞은 公家(八旗)를 벗어나지 못하고, 罰은 반드시 개인(私室)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八家로 나뉘어 살아가며, 土地도 반드시 八家로 나뉘어 거처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손바닥만한 땅도 貝勒이 皇帝에게 양보하지 않으며, 皇帝 또한 버일러에게 許容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자유롭지 못하여 비록 唯一의 汗이 있으나 虛名에 불과하고 사실상 黃旗의 하나의 버일러에 지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일 이와 같이 三分四裂하고, 마치 열 마리의 羊을 아홉명의 牧童이 放牧하는 이와 같은 경우라면, 이 强兵을 總動員하여 山海關으로 進入하여 中原을 얻었다하여도 臣이 이르건데, 數年이 다하지 못하여 반드시 여럿이 뒤섞여 혼란하게 되고, 다룰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89]

라고 하면서 3대 버일러와의 불안한 권력분립적 통치구조의 형태를 지적하였다. 3대 버일러에 대한 견제는 홍타이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권력체제를 형성하는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견제해야 할 대상들이었다. 이 奏疏가 있기 전에 이미 홍타이지는 자신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위협이 되는 4대 버일러들에 대한 권력을 제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평상시 자신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아민[90]에 대해서 제거하고자 하였다.

천총 4년(1630) 6월 初旬 홍타이지는 아민에게 '永平, 遵化 , 灤州, 遷安' 등 4城 일대에 주둔시켜 방어를 책임지게 하였으나, 明軍의 반격으로 아민은 그 지역을 잃었고, 그에 따라 아민에 16개의 죄상[91]을 물어 체포, 감금하였다. 아민은 10년 뒤

---

89) 『天聰朝臣工奏議』, 「胡貢明五進狂瞽奏」 ; "且必狂着故習, 賞不出之公家, 罰必入之私室, 有人必八家分養之, 地土必八家分据之, 卽一人尺土, 貝勒不容於皇上, 皇上亦不容貝勒, 事事掣肘, 雖有一汗之虛名, 實無異整黃旗一貝勒也. 如此三分四陸, 如此十羊九牧, 總籍此强兵進了山海, 得了中原, 臣謂不數年間, 必將錯亂不一, 而不能料理也."

90) 아민은 이미 홍타이지가 즉위함과 동시 후금사회에서 일탈을 시도하였다. 滿文老檔硏究會, 『滿文老檔』天聰 元年 正月; 송미령, 「天聰年間(1627-1636년) 支配體制의 確立過程과 朝鮮政策」, 『동양사연구』54, 2008.참조.

91) 『滿文老檔』, 천총 4년 6월 7일, pp401-416. 열거된 아민의 죄목 16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수르하치와 누르하치는 사이가 좋았는데, 아민이 수르하치를 부추겨 권력에 도전하게 하였고, 수르하치의 사망 후 누르하치는 자신의 아들들과 동등하게 대우하였는데도 그 은혜를

감옥에서 죽었다.

당시 홍타이지와 3명의 대버일러들이 國中의 모든 機務를 '달로 나누어 관장하여 처리(分月掌理)'하며 통치했던 상황에서 阿敏의 行爲는 제 2의 대버일러로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아민의 罪狀은 홍타이지가 아민을 제거하기 위한 구실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째든 제2의 大버일러인 아민의 失脚은 팔기의 분권적 권력구조가 홍타이지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서막이었다.

아민이 幽禁된 이후 팔기의 각 기주를 살펴보면 황태극이 양황기를, 제 1대버일러 다이산이 정홍기를, 제 3의 대버일러 망고이태가 정람기를 그리고 아민의 양람기는 그의 동생 濟爾哈朗이 계승하였고, 양백기와 鑲紅旗는 阿濟格, 多爾袞, 多鐸 등이 各 1旗씩 旗主로 되어 있었다. 濟爾哈朗을 제외하고 7旗의 旗主들은 모두 홍타이지와 異母兄弟로서, 천총 4년 당시의 나이를 보면 다이산이 48세 망굴타이가 44세, 홍타이지 39세, 아지거이 26세, 도르곤이 19세, 도도이 17세였다. 아지거이, 도르곤, 도도는 비록 기주라고 하나 나이가 어려 홍타이지의 권력집중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되지 못하였고, 다이산은 본래 적극적으로 홍타이지를 옹립한 장본인 이였기 때문에 홍타이지의 권력강화를 위협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홍타이지는 집권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둘째 형 망굴타이의 세력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잊은 것, ② 조선 공략시 두두와 함께 조선의 도읍에서 거주하고자 한 것, ③ 조선인 포로부녀들을 內廷에 보내지 않고 임의로 선택한 것, ④ 몽골로부터 온 편지를 汗에게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교류를 하고자 한 것, ⑤ 혼인을 반드시 汗에게 알려야 하는데 혼인의 대가로 받은 가축을 독점하려고 규칙을 어기고 보고하지 않은 점, ⑥ 팔기의 거주지가 이미 정해졌는데, 함부로 경계를 넘어 토지를 개간하고 이주하려고한 것, ⑦ 꿈에 누르하치가 나타나서 아민 자신을 때릴 때 황색의 뱀이 나타나서 감쌌다고 하며, 뱀이 자신을 보호하는 신이었다고 말한 것, ⑧ 汗이 출정하면서 도성에 남아 정무를 처리하게 하였는데 수렵을 하여 정무를 소홀히 한 것, ⑨ 여러 버일러들이 전쟁에서 귀환할 때 스스로를 汗으로 설정하여 버일러들을 모욕한 것, ⑩ 永平의 방어를 맡은 후 지르갈랑에게 협박을 하면서 강제로 동행하게 한 것, ⑪ 영평에 도착해서 환영행사를 하게 하여 함부로 스스로를 높인 것, ⑫ 영평성 안의 漢人들을 미워하여, 汗의 恤民방침을 비방한 것, ⑬ 투항자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팔기의 노예로 만든 것, ⑭ 汗을 원망한 것, ⑮ 몽골의 王女를 강제로 취한 것, ⑯ 明의 군대가 灤州를 공격할 때 돕지 않았고, 영평에서 퇴각할 때 도륙한 것 등이었다.

아민이 제거되고 1년 후, 천총 5년(1631) 8월 13일 홍타이지는 大凌河城을 공략하면서 망굴타이와 旗人의 '差遣'에 대한 '違誤' 간제로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흥분한 망굴타이가 태종을 행해 佩刀를 5寸 가량 뽑아든 사건이 발생하였다. 『滿文老檔』에 수록된 이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 그날(13일), 汗이 출영하여, 大凌河城의 서쪽에 위치한 山岡에 올라, 앉아서 大凌河城을 관찰하였다. 岳託貝勒의 營이 汗과 가까이 있었으므로 岳託貝勒은 (汗을 위한) 酒宴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때 망고이태가 汗에게 아뢰기를 "어제의 전투에서 내 旗下의 諸將이 모두 부상을 입었습니다. 나의 旗의 護軍(가운데) 阿山을 따라 哨兵으로 나간 者들이 있고, 達爾漢의 旗에 편입한 者거 있는데, (나의 旗로) 다시 귀환시킬 수가 없겠는지요?" 汗이 대답하기를 내가 너의 部兵에 대해서 듣자하니, 무릇 (병사를) 파견할 때 거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적은 수의 병사만을 보낸다고) 한다. 망고이태가 말하기를 " 내의 部의 屬下人을 差遣할 때 매번 두배씩 사람을 보냈는데, 어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汗이 이르기를 "과연 그렇다면, (그 사실을) 고발한 者가 誣告한 것이니, 내가 너를 위해 (다시) 물어 볼 것이다. 만약 (그 사실을) 고발한 者가 誣告를 했다면 즉 誅殺에 처할 것이며, 만약 그 고발이 사실이라면 (병사) 파견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者를 誅殺할 것이다." (汗이) 말을 마치고 화가 난 얼굴로 말을 타려 하자, 망고이태가 대꾸하기를 "汗이 된 자는 마땅히 공개적으로 諭를 내려야 하거늘 어찌하여 유독 나에게만 어렵게 (대) 하는가? 나는 汗에게 일체를 순종하였는데, 오히려 (汗은) 그 意中을 알지도 못하고 나를 죽일 생각을 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佩刀의 손잡이를 앞으로 향하여 잡았다.[92]

이러한 '欲犯上'의 '大不敬'의 행위에 대해 議政會議가 소집되었고 홍타이지는 망굴타이를 三大貝勒의 명호에서 革職시켜 一般貝勒으로 地位를 낮추고, 망굴타이의

92) 『滿文老檔』第 40冊, 天聰 5年 8月 13日 條 ; 是日, 汗出營, 登大凌河城之西山岡, 坐觀其城. 岳託貝勒以汗至其營, 備酒餚進宴. 時莽古爾泰對汗曰 : "昨日之戰, 我旗下諸將均被傷, 我旗護軍有隨阿山出哨者, 有編人達爾漢旗者, 可取還否?" 汗曰 : "我聞爾部, 凡遇差遣, 均多違誤." 貝勒曰 : "我部下人, 凡有差遣者每倍於人, 何曾違誤?" 汗曰 : "果爾, 則告者 誣也. 我等可打睹問之, 若告者誣, 則誅其誣告者 ; 若告者實, 則誅其不聽差遣." 言畢, 怒形於色, 將乘馬. 對此, 莽古爾泰貝勒曰 : "爲汗者, 宜從公開諭, 何獨與我爲難耶? 我爲汗一切承順, 仍不中意, 是欲誅我也." 言畢, 遂執佩刀之柄前向

正藍旗 세력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93] 이에 망굴타이는 大버일러에서 名号와 正藍旗 5牛彔를 박탈당한 後, 천총 6년 12월에 울분 끝에 暴疾을 얻어 죽고 말았다.[94]

천총 5년(1631) 12월 팔기제의 권력관계가 변화하였음을 상징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홍타이지는 禮部 參政 李伯龍의 건의[95]에 따라 國中 朝賀行禮時 大버일러와 竝坐하는 문제의 가부를 議政大臣會議에서 결정토록 하였다.

이 會議에 참석한 다이산은

> 제가 황상을 擁戴하여 君으로 섬기는데, 또한 皇上과 並坐하면 國人의 議論이 제가 皇上의 大位를 섬기면서 또한 皇上과 나란히 앉는다하여 매우 非禮라고 할까 두렵옵니다. … 지금부터 以後로는 皇上이 南面中坐하여 至尊之體를 밝히시고, 저와 망굴이태는 皇上을 대좌하겠습니다.[96]

라고 하며 스스로 南面竝坐의 儀制를 개선함으로서 명실공히 황태극 1인만이 남면정좌하는 지존임을 밝혔다.

이로부터 後金은 적어도 대외적 또는 표면적으로 태종은 팔기의 기주 가운데 대버일러들과 분할하고 있던 분권공치적 국정을 극복하고 소위 '大汗'으로서 독존의 지위와 그에 맞는 독존의 지위와 그에 맞는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다이산이 스스로 '곁에서 모시고 앉는(上側侍坐)' 지위로 낮추었다고 해서 八旗의 대버일러로서 자신의 旗主權이나 영향을 포기했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중국식 관료체제나 중국식의 황제권이 만주지배계층 사이에 인식되기에는 아직 이른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는 누루하치가 자신의 死後 後金의 國政을 '八家

---

93)『大淸太宗文皇帝實錄』卷10, p.8

94)『大淸太宗文皇帝實錄』卷12, 天聰 6년 12月.

95)『大淸太宗文皇帝實錄』卷11, p.1 ; " 禮部參政李伯龍疏奏, 我國朝賀行禮時, 不辨官職大小, 常有隨意排列, 諭越班次者. 應請酌定儀制等語. "

96)『大淸太宗文皇帝實錄』 卷10, pp. 36-38 ; " 我等旣戴皇上爲君, 又與上並坐, 恐滋國人之議, 謂我等奉上居大位, 又與上並列而坐, 甚非禮也. ···· 自今以後, 上南面中坐, 以昭至尊之禮, 我與莽古爾泰, 侍坐上側. "

平等共權'토록 지시한 上諭를 잘 알고 있었던 8家의 旗主나 元老功臣들이 대부분 생존하였던 또 다른 요인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홍타이지가 이러한 형식적인 '至尊之體'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대버일러 다이산의 세력을 삭감해야 되는 것은 정해진 순서였다.

천총 9년 9월 대버일러 다이산이 평소 홍타이지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던 哈達公主 莽古濟格[97]을 초청하여 大宴을 베풀고 財帛을 증여한 일이 있었다. 이 사실을 안 홍타이지는 大努하여 다이산과 다이산의 아들 薩哈廉에게 사람을 파견하여

> 너는 네 자신의 旗人을 거느리며 마음대로 행동하고, 또한 朕에게 원한을 품은 哈達公主를 營內로 초청하여 宴會를 열고 선물을 주며 다시 말을 태워 환송하니 그렇게 정성스런 마음씀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 薩哈廉은 禮部에서 임직하면서, 네 아비의 그릇된 행동과 朕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을 초빙한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어찌 이를 저지하는 한 마디의 諫言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냐.[98]

라고 힐문하였다.

다음날 內殿에서 諸貝勒 · 大臣 · 侍衛 등을 소집한 홍타이지는 대버일러인 다이산의 不遵制令과 悖亂을 열거한 후,

> 더욱이 朕이 혼자서만 富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요 兄弟를 변변치 못하게 하려함도 아니다. 모름지기 皇考(누루하치)의 遺業을 받들고, 國祚를 융성하게 하여 後世까지 이름을 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너의 悖亂이 그와 같으니 朕은 杜門不出하겠으니, 너희는 강력한 자 하나를 선출하여 君으로 삼으라, 朕은 짐의 (몫을) 지키는 것으로 족할 뿐이다.[99]

---

97) 莽古爾泰의 동생이자 皇太極의 姊

98) 『大淸太宗文皇帝實錄』 卷 25, p. 11 ; " 爾自卒本旗人, 任意行止, 又將怨朕之哈達公主, 邀至營中, 設宴餽物, 復以馬送之歸, 是誠何心? 爾薩哈廉身任禮部, 爾父妄行, 又邀請怨朕之人, 爾旣知之, 何竟無一言諫阻耶 "

99) 『大淸太宗文皇帝實錄』 卷 25 p. 14 ; "且朕非自圖富貴, 而非簿兄弟也, 蓋欲纘承皇考遺業, 與隆國祚, 胎令名於後世耳. 爾等悖亂如此, 朕將杜門而居, 爾等別擧一强有力者爲君, 朕引分自守足矣"

라고 말을 마친 후 入宮하여 杜門不出하였다.

그러므로 諸貝勒大臣들은 회의를 열어 대선의 4대 대죄상을 규정짓고 대선에게서 大버일러 名号와 和碩貝勒의 爵職을 박탈하는 동시에 10牛彔의 屬人을 몰수하고 罰金으로서 雕鞍馬 10匹, 甲胄 10벌, 은 만량을 배상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다이산의 子 岳託, 薩哈廉, 瓦克達 및 莽古爾泰의 同母弟 德格類에 대해서도 치죄하였다.[100]

다이산의 革号와 罷職 및 10牛彔의 몰수는 홍타이지에 의해 사면되었지만, 이 사건의 결과는 홍타이지가 八旗諸貝勒의 세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집권을 공고히 하게 된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 후 망굴타이가 생전에 그의 여동생 莽古濟 그녀의 夫 瑣諾木杜稜, 망굴타이의 同母第이며 버일러인 德格類 및 屯布祿, 愛巴禮, 冷僧機 등과 공모하여 汗位을 찬탈하고자 했던 음모가 드러났다.[101]

冷僧機의 밀고로 발각된 이 역모사건으로 인하여 모의에 직접 가담했던 莽古濟, 屯布祿, 愛巴禮 등을 비롯해서 이들과 가까웠던 兄弟子姪 등이 처형되고,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평소 홍타이지에 원한을 품고 있는 말을 했던 망굴타이의 子 額必倫, 豪格(홍타이지의 子)의 처이자 莽古爾泰의 차녀및 岳託의 처로서 망굴타이의 장녀 昻何喇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102]

그리고 역모에 직접 가담하였으나 자수를 하였던 망고제의 남편 瑣諾木杜稜은 사면을 받았고, 나머지 망굴타이의 六子 즉 邁達里, 光袞, 薩哈廉, 何克達, 舒孫, 喝納海와 德格類(망굴타이의 弟)의 아들 鄧什庫 등은 서민으로 강등되었으며, 이들의 재산과 屬人들은 모두 官에 예속시켰다. 또한 莽古爾泰가 거느렸던 정람기는 홍타이지에 귀속되어 정황, 양황기에 편제되었다.[103]

홍타이지에 귀속된 정람기는 소속기인들을 곧바로 분산시켜 양황기에 編入하지

100)『大淸太宗文皇帝實錄』, 卷25.
101)『大淸太宗文皇帝實錄』, 卷26, pp. 5-6
102)『大淸太宗文皇帝實錄』, 卷26, pp.8-10.
103)『東華錄』, 天聰 9年 12月 辛巳 條 ;“以正藍旗立上旗, 分編爲二旗, 以譚泰爲正黃旗固山額眞, 宗室拜尹圖爲鑲旗固山額眞.”

않고 원래의 양황기와의 구분되게 정람기 기인들을 양분하여 신양황기로 편제된 양상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별도로 2명의 固山額眞을 설치하여 1等公臣으로서 홍타이지의 사위였던 楊古利의 동생 譚泰가 정황기 固山額眞으로 宗室拜尹圖는 양황기의 固山額眞으로 임명하였으며 정람기의 固山額眞이었던 覺羅巴勒은 拜尹圖휘하 梅勒章京으로 강등시켰다.

이상의 사건들을 통해 4大 버일러의 권력들은 분해되어 분권적 권력체제가 붕괴되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천총말년에 이르러서는 홍타이지는 사실상 양황, 양람, 양백의 6기를 장악하여 팔기합의에 의한 공동정치 국면을 종식시키고, 홍타이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제정치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3. 몽골 지배와 대청제국 성립

북방민족 사회에서 대외경제 확대의 가능성은 지도자의 정치적 권력 강화를 의미한다. 홍타이지는 만리장성 이북지역에서 대명 관계를 주도하게 되자 몽골연맹에 대한 지배도 점차 강화하였다. 1631년에는 몽골과 會盟하고 각종 約法을 제정하여 맹주로서의 권한을 강화하였다.[104] 이에 이어 유목사회의 분란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外蕃몽골에 대해서 各部의 牧地를 획정하고 인구수를 조사하는 한편 각종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한 후금에 투항하여 만주팔기에 分散編成되어 있던 몽골인을 분리하여 몽골八旗을 편성하였다.[105]

홍타이지는 몽골 연맹의 盟主로서 反릭단 활동과 대외경제 활동을 주도하고 몽골 연맹 내부의 정치를 담당함으로서 몽골 汗으로서의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몽골 팔기를 소유함으로써 강력한 몽골 汗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몽골 汗의 정통성을 갖고 있던 릭단 汗의 아들을 투함시킴으로써 홍타이지는

104) 노기식,「만주의 몽골 支配와 大淸體制로의 轉換」,『동양사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00, pp.104-105.

105) 노기식, 『후금시기 만주와 몽고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9, pp.120-124, 174-183쪽.

몽골 汗의 권력을 완전히 병합하였다.[106]

明初에 몽골의 지배하에 벗어났던 만주가 明末에 이르러서는 몽골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북방민족 국제질서에서 몽골과 만주의 관계는 역전되었다. 만주의 몽골 지배는 또한 북방민족 세계가 통합을 이루어 명조 중심의 국제질서와 대립되는 북방민족의 국제질서를 형성하였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몽골 병합이 만주가 大淸體制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북방민족 국가에서 군주권의 강화는 대외 관계의 확대에 기반을 두고 있다. 홍타이지는 後金 體制의 위기에서 벗어나 요동 지배를 안정시키는 성공을 거둠으로써 보다 강력한 君主權을 장악하게 되었다. 漢人 지배 정책의 轉換 과 官僚制의 도입을 통해 한인 군주로서의 권력을 창출하고, 반릭단 활동과 明 內地 약탈을 주도하고 몽골 지배를 강화하여 몽골 汗의 권력을 병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기체제에서 권력은 버일러들에 의해 공유되었고 滿洲汗은 그 중의 하나일 뿐이었다. 한인을 지배하는 征服君主이자 몽골을 지배하는 汗인 홍타이지에게 걸맞는 새로운 만주 汗의 위상을 창출할 필요가 있었다.[107]

홍타이지의 皇帝 즉위는 滿 · 蒙 · 漢 군주로서의 이미지 형성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연호를 바꿔 황제를 칭한 것은 천총 10년(1636년) 4월 이후의 일이지만, 皇帝가 되기 위한 준비 단계는 그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天聰 9년 홍타이지는 文官들을 모아 놓고, 中原의 한인들은 有德한 皇帝나 無德한 皇帝나 마찬가지로 天子로 부르냐는 의미심장한 언급과 함께 天子에 대한 개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어서 '天下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며 오직 유덕한 사람을 정해서 天子라고 해야 한다.'[108] 는 말을 덧붙이면서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변화를 계획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홍타이지의 속내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났는데, 천총 9년 10월 13일 홍타이지는 " 우리나라에는 원래 만주(Manchu, 滿洲), 하다(HASda, 哈達), 울라(Ula,

106) 노기식, 1999, 위의 논문, pp.149-159.
107) 노기식,「滿洲의 興起와 東아시아 秩序의 變動」, 『中國史硏究』16, 2001.
108)『內國史院檔』 上, 天聰 9年 5月 20日, p.167; 東洋文庫淸代史硏究室 譯註. 『舊滿洲檔: 天聰九年』, 東洋文庫, 1972. pp. 144-145.

鳥喇), 여허(Yehe, 葉赫), 호이파(Hoifa, 輝發) 등의 명칭이 있었다. 모르는 이들은 종종 여진(Jurchen)이라고 칭한다. 이후에 모든 이들이 우리나라를 滿洲[109]라고 해야 한다. 女眞이라고 하면 처벌할 것."이라는 선언을 하였다. 이것은 누르하치가 자신들은 12세기에 정권을 형성하였던 金 왕조를 계승하였고 그 후손이라고 선언하였던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110] 이것은 遼東地域 일부를 지배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섰던 金과는 거리를 두어 중국내륙으로 진출을 위한 새로운 의식전환의 계기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차하를 병합한 것이었다. 홍타이지는 汗으로 즉위한 이래 계속 몽골의 反릭단 세력을 이용하여 차하르를 견제하면서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였다. 그리고 몽골이 만리장성 지역에서 행사하던 경제활동을 주도하면서 차하르에서 이탈한 몽골세력을 수습하여 後金의 체제 내에 편입시켰다. 릭단이 사망한 후 천총 6년(1634년) 차하르의 잔여세력을 복속시킴으로써 누루하치가 요동을 공격할 때부터 시작된 차하르를 중심으로 한 몽골과의 대립은 마무리되었다.[111]

천총 9년 9월 말에 릭단의 아내와 그의 아들을 맞이하였고, 연회를 베풀었다.[112] 이때 몽골의 玉璽[113]를 손에 넣었다고 선언하고, 또 흑룡강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114]한 후 後金의 조정 내에서는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었다. 축하행사가 끝난 뒤

---

109) '만주'라는 말은 문수보살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의 '만쥬시리'에서 왔다. 문수보살 신앙은 여진족 내에 널리 확산되어 있었고 만주라는 말은 총명한 사람을 의미하였다. '세 사람이 모이면 문수보살의 지혜가 나온다.'라는 말이 있다. 홍타이지는 민족명을 만주로 정할 때도 세사람(=滿 · 蒙 · 漢)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통합된 대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잡아가려는 그의 의도를 추측해 볼 수 있다.

110) Crossley, A Translucent Mirror: History and Identity in Qing Imperial Ideolog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p.145. 누루하치는 금왕조의 주체들과 같은 민족일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같은 씨족이라고 까지 하였다. 그는 명을 '南朝'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금이 송에게 사용하였던 용어를 모방한 것이었다. 만주족으로 선언한 내용은 『內國史院檔』 上, 天聰 9年 10月 13日, p.205 참조

111) 노기식, 『만주의 몽골 차하르 병합과 그 의미』(『중국학논총』 14), pp.88-90.

112)『內國史院檔』 上, 天聰 9年 9月 25日, p.202.

113) 玉璽의 내력에 관해서는『大淸太宗文皇帝實錄』 권 24. 천총 9年 8月, 317쪽 참조

漢人官僚들이 옥새를 얻은 것을 축하하며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릴 것을 청하니 이른바 '尊號'를 정하여 체제전환을 도모 하고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홍타이지는 자신이 후덕하지 못해서 백성들을 보살피고 정치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할까 걱정이라는 표현으로 거부의 뜻을 전하였다.[115]

漢人官僚들에게서 시작된 尊號를 결정하는 일은 天聰 9년(1635년) 12월 28일[116]에 버일러들이 참여한 가운데 결정되었다. 그들은 의논한 후 만주인 관원 弘文院의 히퍼(Hife, 希福)와 가린(Garin, 剛林), 秘書院의 로쇼(Loso, 羅碩), 그리고 예부의 계심랑 키충거(Kicungge, 祁充格)과 같은 滿洲人 관원을 통해서 홍타이지에게 상주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들은 첫째, 孔有德, 耿仲明, 尙可喜 세 장군이 이미 투항하였고, 둘째, 차하르부의 귀부와 주변 민족들을 복속한 것을 근거로 尊號를 받을 것을 청하였다. 게다가 차하르 릭단의 아들이 내항하였고 玉璽의 획득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까지 확보하였다는 것이 간청의 근거였다.

이에 대해서 홍타이지는 아직 대업을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다시 고사하였다.[117] 일단 홍타이지가 고사한 이유를 보면, 명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일에 전력하고 일을 다 마친 후 존호를 받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후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홍타이지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홍타이지의 拒否에 禮部의 버일러 薩哈廉은 希福, 剛林, 羅碩 등을 통해서 '汗이 존호를 받지 않는 것은 우리 여러 버일러들이 잘못한 때문'이라는 언급과 함께 버일러들이 修身과 忠信을 맹서하여 君臣의 道가 바로 서게 하겠다는 의

114) 孫文郎 · 李治亭, 『天聰汗崇德帝』(吉林文史出版社, 1993); 조병학, 「後金의 흑룡강주변 부족에 대한 평정과정 및 복속정책」,『몽골학』 17, 2004; 陳鵬, 「淸太宗統一黑龍江流域初探」(『滿族硏究』 2004-4) 참조.

115)『內國史院檔』 上, 天聰 9年 10月 1日, p.202; 『舊滿洲檔:天聰九年』, 天聰 9年 10月 1日, pp.306-307.

116) 이 절에서 서술하고 있는 천총 9년 12월 28일에 있었던 내용은『內國史院檔』上, 天聰 9年 12월 8일, pp.221-224와 『舊滿洲檔:天聰九年』, 천총 9년 12월 28일, pp.369-383의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다.

117)『內國史院檔』 上, 天聰 12年 月 28日, p.221

지를 표명하였다.

이런 보고를 받은 홍타이지는 '버일러 薩哈廉이 이렇게 언급한 것은 진실로 내 마음을 얻은 것'이라며 만족을 표현하였다. 나아가 여러 버일러들이 충성 맹세를 하고난 뒤 尊號를 받을 지 여부를 고려하겠다며 버일러들의 맹서을 재촉하였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 만주인과 한인 문관을 불러 모아 놓고 希福, 剛林, 羅碩 등에게 '여러 버일러들이 존호를 정할 것을 청하였는데, 지역이 아직 통일되지 않아서 天意를 알 수 없으므로 받을 수 없다'고 그 이전과 동일한 이유를 언급하면서 거부의 뜻을 전하게 하였다.

이런 홍타이지의 뜻이 전해지자, 鮑承先, 寧完我, 范文程, 羅綉錦, 梁正大, 齊國儒, 楊方興과 같은 문관 소속의 漢人文官들은 '하늘의 도리를 따르고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大號를 정하여 大統을 이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한인관료들이 존호를 정하는 일을 주도하였고, 만주 버일러들이 이 일에 대해 홍타이지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통로도 역시 그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통로에는 문관소속의 만주인들도 있었다. 즉, 홍타이지는 문관의 관료들을 움직여서 버일러들이 존호를 올리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의도한 대로 국면을 이끌어갔다.

홍타이지가 존호를 계속해서 거부한 의도를 분명히 알아차린 버일러 薩哈廉은 그 다음날 여러 버일러들을 관청에 불러 말하기를 '각자 마땅히 개혁을 맹세해서 汗께서 존호를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고, 모두 그 말을 따라서 각각 서약서를 上奏하였다. 홍타이지는 그 것을 하나하나 살펴본 후 다이산이 그 맹서에서 빠진 것을 발견하였고, 薩哈廉에게 버일러들의 맹세문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다이산의 병이 다 낫기를 기다려서 맹서를 받으라는 지시를 했다.

홍타이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맹세문의 내용에 대해서도 지시를 내려, 이전에 버일러들이 저지른 패역한 일은 언급하지 말고 마음에 忠信을 담고 그 責務를 다 할 것이라는 내용을 서술하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다른 뜻을 품으면 처벌할 것임도 분명히 하였다. 권력을 공유하였던 4명의 버일러들 중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다이산의 맹세까지 받아야 이 일이 진전될 수 있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다이산이 맹세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다이산을 비롯한 각 버일러들은 천총 10년 4월 8일 皇帝를 추대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奏를 올리고 홍타이지가 이를 수락하였다. 118)

이는 大淸體制로 전환에 앞서 버일러들을 완전히 장악하였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어서 버일러들과 滿洲 · 蒙古 · 漢人 관원들이 모두 모여 만주어 · 몽골어 · 한어로 쓴 즉위를 청하는 表文을 읽고 홍타이지가 이를 수락하는 형식의 행사를 가졌다.119) 만 · 몽 · 한의 군주로서의 권위를 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행사임이 분명하다. 즉위식도 만 · 몽 · 한의 버일러들과 관원들이 모두 도열한 가운데 거행되었다.120)

홍타이지에게는 '寬溫仁聖皇帝'라는 존호가 올려졌고 崇德 元年으로 改元하고 국호를 '大淸'이라 정하였다.121)

홍타이지가 받은 皇帝 존호의 유래를 전하는 『丙子年四月(秘錄)登汗大位檔』 天聰 10年(1636) 4월 8일의 上奏文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汗 · 어전이시여, 귀하께서는 천하가 어지러운 때를 만나서 덕을 쌓아 하늘의 명을 받으시어, 거스르는 자는 무력으로 토벌하고 따르는 자는 招無하시었고, 어질고(仁), 관대한(寬) 마음을 萬民에게 펴시었으며, 朝鮮國을 항복시키시고, 蒙古國을 하나로 統合하시어 玉璽를 얻으셨으며, 안과 밖을 和合하시었습니다. 위로는 하늘의 마음에 들어맞고, 아래로는 백성의 뜻에 합치합니다. 이에 衆人은 모두 하늘의 명에 따라서 존호를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11일의 表文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 그러므로 내외의 여러 버일러들과 大臣들이 一堂에 모여 汗을 稱揚하여 '관온인

118) 東洋文庫淸代史硏究室 譯註.『舊滿洲檔』, 東洋文庫,1972.天聰 9年 12月 28日. pp. 369-375
119)『滿文老檔』天聰 10年 2月, 908-909
120)『大淸太宗文皇帝實錄』(中華書局, 1985) 卷 28. 天聰 10年 4月 乙酉. pp 360-369
121)『大淸太宗文皇帝實錄』 권 28. 10年 4月 丁酉. pp 372-373

성황제(寬溫仁聖皇帝)', 國號를 고쳐서 '大淸國', 年號를 改元하여 崇德 元年으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관온인성황제의 만주어 표기 'gosin onco huwaliyasun enduringgehan'은 "어질고(仁), 관대한(寬) 마음을 萬民에게 펴시었으며(gosin onco be tumen irgen de selgiyefi)"에서 '어질고(仁), 관대한(寬)마음'과 안과 밖을 화합하시었습니다.(dorgi tulergi be huwaliyambuha)"에서 '화합'을 특별히 강조하여 'gosin onco huwaliyasun '이라고 칭양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천총 10년 4월 홍타이지가 받은 황제 존호의 만주어 표기는 단순히 황제로서의 덕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안과 밖을 화합'하여 다민족국가의 국가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상주문의 "안과 밖을 화합하시었습니다."에서 '안과 밖'이 가리키는 것은 어쩌면 황제에 추대한 만주 · 몽골 · 한의 세 민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4월 11일의 祝文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 만주국의 臣 홍타이지는 감히 하늘과 땅에 고합니다. 저와 같이 하찮은 존재가 汗의 자리를 계승한 이래, 대도(大道)를 위하여 항상 생각을 궁리하고 시시각각으로 얇은 얼음을 밟듯이 근시하며, 밤이 깊어서야 자리에 눕고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나 힘쓰기를 10년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자비로워 父祖의 道를 일으키시어 조선국을 항복하게 하였습니다. 몽골국을 하나로 통합하고 옥새와 강토를 얻었습니다. 안과 밖의 대신들과 백성들은 모두 나에게 공이 있다고 하며 존호를 선양하여 하늘의 뜻에 부합하고자 한다고 하여 나는 "대명과 아직 대적하고 있다. 존호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지만, 몇 번씩이나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뭇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황제위를 받아들이고, 국호를 고쳐서 대청국, 연호를 개원하여 숭덕 원년으로 했습니다.

앞에서 보듯 황제 즉위를 만족시키는 조건으로 만주국과 몽골국의 지배, 조선국의 평정, 大元의 全國玉璽 획득을 들고 있으며, 동시에 부족한 조건으로는 대적하고 있는 대명국의 존재를 들고 있다.

즉, 이 시점에서 화합한 '안과 밖'이란 만주족 · 몽고족 · 한족 과 조선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홍타이지가 大淸의 황제 자리에 즉위한 의도에는 동북아시아, 내륙아시아, 중국 내지를 지배한 大元國 皇帝를 계승한다는 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122]

한편, 홍타이지에 의한 대청체제의 수립은 만주가 後金體制에서 벗어나 요동 지배를 기반으로 만 · 몽 · 한족을 통합을 상징하며 명조와 대등한 국가체제를 형성하였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만주가 명조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이탈하여 이에 대립되는 滿洲 중심의 국제질서를 형성하고 입관을 거쳐 건륭 20년대에 최대 판도를 형성하기까지 청조의 역사에 나타는 정치적인 흐름의 원천이 되었다. 또한 대청국은 大民族國家의 규모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대청국의 정치체제를 진일보 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122) 石稿崇雄, 『대청제국 1616~1799』, 홍성구 역, 휴머니스트, 2009. pp. 126-128.

Ⅳ. 맺음말

八旗制度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군사력을 키운 누르하치는 여진사회를 빠를 속도로 발전시켰다. 이와 같은 여진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1616년에는 누르하치는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고 국호를 '後金', 연호를 '天命'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여진의 후예임을 표방하고 여진사회의 통일된 국가로 등장과 함께 그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게 되었다.

후금의 건국은 對明關係의 변화를 야기시켜 적극적인 적대관계로 변모하였다. 급기야 천명 3년 '七大恨'을 주장하면서 대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明朝는 조선과 연합하여 대규모의 정벌을 도모하지만 사르후(Sarhu; 薩爾蔚)에서 대패하였다. 후금은 이를 계기로 요동지역의 공략을 계속하였다.

후금의 요동공략은 여진사회의 또 다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었으며 이후, 요동공략이후 요양으로 천도까지 감행하였다. 이는 이전의 전략적 목적의 천도와는 달리 요동지역을 장악하려는 의도였으며 특히 요동지역의 경제력을 장악하여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홍타이지가 누르하치의 뒤를 이어 만주 汗이 되었을 때 후금의 체제는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다. 누르하치 시기부터 요동한인 지배는 이미 불안정했고 대명 공격은 답보 상태에 빠져 오히려 명의 역공을 받을 것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瀋陽으로 천도하여 이의 극복을 꾀했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누르하치는 對明 전투에서 부상하여 사망하였다.

결국 후금은 漢人 농경의 부진과 대외관계의 단절로 인해 경제적 궁핍과 고립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대외경제 상의 불안정과 함께 내부 정치상으로도 위기를 맞이했다. 누르하치의 가부장적 권위에 의해 통합이 유지되었던 팔기체제는 누르하치의 사후 팔기합의제로 전환되면서 분열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홍타이지는 통합(후금체제의 붕괴방지)과 대외경제의 확대(요동지역 고수)라는 양대 과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홍타이지는 처음부터 강력한 군사력으로 성장한 여진족의 체계로는 문화수

준이 높고 자존심이 강한 漢人을 통치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明代의 부패하고 무능력한 군주들의 실정이 명의 쇠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을 것이며 이민족 왕조인 元의 중국통치의 비능률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체제를 개혁하여 군주중심의 전제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이에 대외 경제적 측면을 극복하기 위해 홍타이지는 누르하치가 말년에 실시했던 한인 탄압책을 대폭 수정하여 요동지역 토착한인에 대한 同化政策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대한인정책의 변화는 홍타이지의 지배권의 장악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무력의 증강이나 경쟁자에 대한 직접적인 약화뿐만 아니라, 對漢人政策을 변화시켜 요동의 지배를 안정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신의 지배권을 확립시켜 나갔던 것이다. 한편 지배층 출신의 투항 한인관료에 대한 우대도 홍타이지 시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한인관료에 대한 우대는 국가조직의 정비로 연결되면서 만주사회는 또 한번의 변모를 맞이하게 되었다.

천총 3년 한인관료들로 하여금 文官을 설치하게 하고 서적의 변역과 政事의 기록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홍타이지의 唯一君主로서의 면모를 가지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되었다. 천총 10년(1636)에 이르면 문관은 內三院으로 개편되는데, 內國史院은 군주의 기거, 조령 등의 기록을 담당하였으며, 內秘書院은 외교문서와 奏疏등의 문서를 관장하였으며, 內弘文院은 황제에 대한 정사의 자문과 제도의 반포 등을 자문하게 하였다. 그리고 천총 5년(1631)에는 중국의 행정조직을 답습하여 6部制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서 군정과 민정은 분리되었으며, 중국적인 군주독재의 관료국가체제를 이루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정치적으로도 자신을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 개편을 시작하였다. 天命 11년 9월 홍타이지는 8大臣과 佐管16大臣, 調遣16大臣을 설치하여 팔기제도를 확대개편 하였으며 또한, 도르곤과 도도 등을 중용하여 자기세력을 증강시켰나감으로써 자신의 권력기반을 확보하였다.

또한, 홍타이지는 대위에 오른 후 자기와 동등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다이산, 아민, 망굴타이 등의 3버일러들로부터 점차적으로

정치권력을 빼앗고, 점차 旗人社會에서 汗으로서의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해 나갔다.

이후 홍타이지는 차하르부를 평정함과 동시 대원의 전국옥새를 차지하게 되어 이를 계기로 1635년(천총 9)10월 지금까지의 민족명이던 여진을 만주로 바꾸고, 다음 해 천총 10년 4월 만주주과 몽골족의 여러 버일러들과 한족의 大臣들의 추대를 받아 대청 황제 자리에 올랐다.

홍타이지에 의한 대청체제의 수립은 만주가 後金體制에서 벗어나 요동 지배를 기반으로 만 · 몽 · 한족을 통합을 상징하며 명조와 대등한 국가체제를 형성하였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만주가 명조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이탈하여 이에 대립되는 滿洲 중심의 국제질서를 형성하고 입관을 거쳐 건륭 20년대에 최대 판도를 형성하기까지 청조의 역사에 나타는 정치적인 흐름의 원천이 되었다. 또한 대청국은 大民族國家의 규모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대청국의 정치 체제를 진일보 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參考文獻

1. 史料

『大淸太祖武皇帝實錄』

『大淸太宗文皇帝實錄』

『東華錄』, 蔣良騏 撰.

『燃黎室記術』

『滿文老檔』 上 · 下, 中國第一歷史檔案館 · 中國社會科學院歷史硏究所 譯註, 北京: 中華書局, 1990.

『明淸史料 改編』 上 · 下, 中央硏究院歷史語言硏究所 刊行, 臺北, 中華書局.

『淸史稿』, 北京: 中華書局, 1977.

『淸史列傳』, 北京:中華書局, 1987.

2. 硏究書

김종원, 『근세동아시아관계사 연구』, 혜안, 1999.

Rene Grousset,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김호동 · 유원수 · 정재훈 역, 사계절, 2005.

미야지마 히로시, 『조선과 중국 근세 오백년을 가다-일국사를 넘어선 동아시아 읽기』, 김현영 역, 역사비평사, 2003.

민두기, 『中國近代史論』, 서울 : 지식산업사, 1976.

房守志, 「試論努爾哈赤的歷史功績」, 傳波 主編, 『淸前史論叢』藩陽:遼寧人民出版社,1994

부악성, 『中國通史 (下)』, 신승하 역, 지영사, 1998.

石稿崇雄, 『대청제국 1616~1799』, 홍성구 역, 휴머니스트, 2009.

孫文郎 等, 『明淸戰爭史略』,瀋陽: 遼寧人文出版社, 1986.

孫文良, 『淸太宗全傳』, 吉林人民出版社, 1983

송미령, 『청대정책결정기구와 정치세력』혜안, 2005.
신채식, 『동양사개론』, 삼영사, 2008(개정 3판).
閻崇年, 『努爾哈赤傳』, 北京, 北京出版社, 1983
오금성, 『中國近世社會經濟史硏究』, 서울 : 일조각, 1995.
임계순, 『청사-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신서원, 2007.
日本東亞硏究所 編, 徐炳國 역, 『異民族의 中國統治史』, 서울: 대륙연구소, 1991.
李洵 · 薛虹 主編 , 『淸代全史』第一卷,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91.
張晋蕃 · 郭成 康, 『淸入關前國家法律制度』,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88
張普藩, 『淸朝法制史』, 法律出版社,1994
전해종, 『韓中關係史硏究』, 서울: 일조각, 1970.
조너선 D. 스펜스, 『현대중국을 찾아서 1』, 김희교 역, 이산, 1999.
조영록, 『中國近世政治史硏究』, 서울 : 지식산업사, 1989.
苕上愚公, 「東夷考略」潘喆 · 孫方明 · 李鴻彬 等編, 『淸入關前史料選輯』1,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4
최소자, 『명청시대 중한관계사연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_____, 『청과 조선 -근세 동아시아의 상호인식』, 서울 : 혜안, 2005.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가, 1999.

3. 論文

김구진, 「명대 여진사회의 경제생활양식과 그 변화」, 『동양사학연구』17,1982.
金貴達, 「滿淸皇朝의 代自國人施策」, 『전북사학』6, 1982.
金斗鉉, 「遼東支配期 누르하치의 對漢人政策」, 『동양사학연구』25, 1987.
_____, 「淸朝政權의 成立과 發展」, 서울大學校東洋史硏究室編, 『講座中國史』Ⅳ, 서울: 지식산업사, 1989.
_____, 「8旗制度의 構造分析을 위한 試論」, 『蔚山史學』5, 1992.
金炳贊, 「淸初의 中國統治와 漢人의 反淸抗戰」, 東大敎育大學院歷史敎育科論文, 1988.

김종원, 「정묘호란시의 후금의 출병동기」, 『동양사학연구』12·13, 1978.
_____, 「팔기제도의 성립과정에 관한 일 고찰」,『동아연구』6, 1985.
남종호, 「中國 傳統政治文化-皇權政治를 중심으로」, 『중국연구』39, 2007.
盧基植, 「누르하치 시기의 武官制와 재물분재」,『송갑호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1993.
_____, 『후금시기 만주와 몽고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_____, 「後金時期 만주와 몽골의 聯盟관계」, 『明淸史硏究』11, 1999.
_____, 「만주의 몽골 支配와 大淸體制로의 轉換」, 『동양사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00.
_____, 「홍타이지의 반릭단 만몽연맹 확대와 이용」, 『중국학논총』13, 2000.
_____, 「만주의 몽골 차하르부 병합과 그 의미」, 『中國學論叢』 14, 2001.
_____, 「滿洲의 興起와 東아시아 秩序의 變動」, 『中國史硏究』16, 2001.
_____, 「누르하치의 암반(amban)에 대한 組織化와 統制」,『明淸史硏究』16. 2002.
_____, 「명대 몽골과 만주의 교체(交替)」, 『사총』59, 2004.
박현모, 「정묘호란기의 국내외정치:국가위기시의 공론정치」, 『國際政治論叢』42, 2002.
서정흠, 「명말의 건주여진과 팔기제의 기원」, 『역사교육논집』2, 1981.
송미령, 「합의(合議)에서 지명으로 - 청대 황위계승방식의 변화」, 『이화사학연구』32, 2005.
_____, 「天聰年間(1627-1636년) 支配體制의 確立過程과 朝鮮政策」, 『동양사연구』54, 2008.
宋正洙, 「淸朝의 皇帝統治와 思想統制의 實際」, 『農檀學報』25·26, 1964.
_____, 「明淸王朝의 成立과 正統性確保」,『명청사연구』8, 1998.
申採採, 「宋 이후의 皇帝權」, 『東亞史上의 王權』, 한울아카데미, 1993.
吳金成, 「明 · 淸代 國家權力과 紳士」, 서울大學校東洋史硏究室編, 『講座中國史』Ⅳ, 서울:지식산업사, 1989.

유지원, 「明末 · 淸初의 사회변화」, 서울大學校東洋史硏究室編, 『講座中國史』Ⅳ, 서울:지식산업사, 1989.

_____, 「淸朝權力의 地方浸透過程」, 『東洋史學硏究』35, 1991.

_____, 「사르후(薩爾滸, Sarhu)戰鬪와 누르하치」,『明淸史硏究』13, 2000.

전해종, 「여진족의 侵寇」,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2권, 1981

조병학, 「後金의 흑룡강주변 부족에 대한 평정과정 및 복속정책」,『몽골학』 17, 2004

조재덕 『淸朝 皇帝支配體制 確立에 關한 硏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_____, 「中國官僚制 硏究를 위한 試論」, 『東洋學硏究』2, 1996.

_____, 「淸朝滿洲佐領에 관한 一考察」, 『경희사학』20, 1996.

周遠廉, 「後金八旗和碩貝勒'共治國政'論」,『淸史論叢』北京2, 1980.

차혜원, 「淸初 言官의 政治的 기능변화」, 『동양사학연구』30, 1991.

_____, 「淸代의 行政改革과 淸官論의 전개」, 『역사학보』172, 2001.

최소자, 「청조의 왕위계승과 다이곤(多爾袞)」『이화사학연구』9, 1970.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역사교육	학 번	20068222	과 정	**석사**, 박사
성 명	한글: 전승호 한문 : 全承鎬 영문 : Jeon Seung-ho				
주 소	전남 나주시 노안면 금동리 228-16				
연락처	E-MAIL : chosun03@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홍타이지의 皇帝權 강화와 大淸帝國 성립 영어 : HongTaiji, The Reinforcement of the Emperor Power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tical System to the Great Qing Empire.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

년 월 일

저작자: 전 승 호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